

기성, 목사 94명 배출... “성결의 힘으로 나아가자”

제117년차 성결인대회 및 목사안수식 개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임석웅 목사, 이하 기성)가 4일 오전 서울 아현교회(담임 손재운 목사)에서 제117년차 성결인대회 및 목사안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 94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목사안수식은 총회장 임석웅 목사의 집례로, 예식사, 기원, 김주현 목사(고시위 원장)의 기도, 안수대상자호명, 서약, 안수례, 공포, 성찬, 안수증 및 메달 수여, 신임 목사의 동반 가족 안수기도, 한기재 목사(前 총회장)의 권면사 순서로 진행됐다.

94명의 안수대상자들은 서약을 하고, 96명의 안수위원들(총회 안수위원 37명, 지방회 파송 안수위원 50명, 특별 안수위원 9명)로부터 안수를 받았다. 이어 안수 받은 신임목사들이 동반한 가족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 가졌다.

권면사를 전한 한기재 목사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세 가지는 사명의 핵심을 말한다”며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에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소명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목사 안수를 받은 신임목사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길 바란다. 첫째는

전도하는 것이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며 “둘째는 목양하는 것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목사안수식에 이어 축하와 인사 순서가 진행됐다. 문창국 목사(교단 총무)의 사회로, 내빈소개, 목사합창단의 ‘베드로의 기도’ 찬양, 황덕형 목사(서울신대 총장)의 격려사, 윤문기 목사(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감독)·김만수 목사(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격려사를 전한 황덕형 목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을 잘 지켜 겸손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윤문기 목사는 2년 전 목사안수를 받는 후배들을 위해 썼던 글을 읽었다. 윤 목사는 “때로 목회자의 길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부르셨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오늘 목사로서 나서게 된 모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기성 총회가 4일 오전 서울아현교회에서 제117차 성결인대회 및 목사안수식을 개최한 가운데, 안수위원들이 94명의 안수대상자들을 안수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고 했다. 이어 김만수 목사는 “목사를 세우기까지 묵묵히 기도했던 모두를 축하한다”고 했다. 행사는 인사와 광고, 교단가, 이신용 목사(前 총회장)의 설교, 합성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동 목사(목사부총회장)의 인도로, 김정호 장로(장로부총회장)의 기도, 한용규 목사(총회서기)의 성결봉독,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찬양대의 주와 같이 되기를 특별찬양, 임석웅 목사의 설교, 합성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임석웅 목사는 “우리가 안수받을 때 제일 먼저는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다. 성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이라며 “오늘 본문인 레위기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한다. 거룩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 성결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부터 말씀에

순종하여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결할 수 없어 죄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구원 받은 줄 믿는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결교단이 민족의 소망이 될 줄 믿는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이 거룩해지기를 꿈꾸며, 이것을 위해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해지고, 그 은혜로 주신 성결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아가자”며 “성결 그 이름대로 성결하게 되어 한국교회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의 소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합성기도 시간에는 ▲안효창 목사(제117년차 지방회장단 대표)가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목사 되게 하소서’ ▲최환기 장로(영신도단체협의회 대표회장)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하소서’ ▲구교한 목사(서울신대 총동문회장)가 ‘성결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목사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

‘생명존중’ 주제로 열렸던 제2기 예수학교 성료

3월 12일~4월 2일
연동교회서 진행

지난달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서울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진행했던 제2기 예수학교가 지난 2일 마무리됐다. 행사는 예수말씀연구소(소장 소기전 교수)가 주최했다.

이번 예수학교에서는 ‘태아 생명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 프랑스가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것에 대해 성경적인 대답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는 성격의 강연들이 있었다.

김성이 목사(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만남’이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이었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는 ‘태아 생명 윤리’라는 강연을 통해

여 낙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는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태아가 낙태되는 순간 급속도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일깨우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목사(중북 성연교회)는 개척교회 6년을 맞이한 다둥이 목회자로 어린 이 전도에 앞장서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가 어떻게 MZ 세대를 넘어서 알파 세대로 진입하는 상황에 선교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발표를 했다.

또한 ‘MZ 세대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이근식 목사(영광교회 원로)가 “고난이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는 섭리”라는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예수학교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인 장영미 전도사(과천교회)는 시청각 교재를 통해 미래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학습자 주도형의 교육을 보여주었다. 이어 마지막강제의 선교사(일본인교회)가 18년 동안 일본의 황무지와 같은 현장에서 했던 찬양과 음악을 통한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대중전도를 위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기타 연주로 들려주었다.

특히 예수학교는 ‘부활절 특집’으로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줄 것인지, 다양한 새로운 목회 현장에 몸담은 실천 전문가인 허정훈 목사(분당제일교회), 박광일 교수(장신대), 김준희 집사(바이블 스터디 그룹 The Way), 태 에트경수원 목사(몽골인 마라나라 교회)와 알타르치 전도사(몽골인 주안교회) 등이 도전을 주었다”며 “많은 이들이 새로운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기전 소장은 “어린이에게는 드러내 보이고 어른에게는 숨기시는 예수님이란 패



제2기 예수학교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수말씀연구소

널 발표를 통해 “인류에게 가장 아픈 존재는 낙태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교회가 한 생명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예수학교는 이번 2기 과정 중, 교회의 후원과 개인의 헌금을 모아 장신대 신대원 졸업반 신학생 중에서 3~4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부모 6명에게 1인당 18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예수학교는 오는 6월 6일 강원도 홍천에서 다둥이 가정 목회자를 초청해 하루를 보내면서 특별히 미자립 교회와 다둥이 가정의 신학생을 구체적으로 후원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예수학교는 탈북자들의 슬픔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를 서울 용산CGV를 찾아 단적으로 관람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를 찾아서 태국까지 1,200km를 걸어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민들의 아픔”을 공유했다.

또한 예수학교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생일 149주년이었다던 지난 3월 26일, 서울 대학로 이화장에서 열린 ‘326 콘서트’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했다.

오는 4월 6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기적의 시작’을 단체로 관람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기감 최대 중부 연회, 귀어신학 이단 규정안 총회 제출키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이하 기감) 최대 연회인 중부연회(감독 감찬호)가 오는 10월에 열릴 기감 행정총회에 귀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강화군 은혜교회에서 제 83회 연회를 개최한 중부연회는 연회 이틀남인 2일 이 같이 결의했다.

감찬호 감독은 귀어신학에 대해 외부 강사들이 강의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학생들의 요구가 잦았으며 귀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안을 기감 행정총회에 제출하자는 안이라고 보고설명했다. 중부연회는 지난해 연회에서 ‘NCCKWCC 탈퇴’를 총회에 제출하는 안을 결의한 바도 있다.

김진영 기자

서울 디지털밸리 퀴드러플 역세권 귀한 소형 아파트 선택순분양!



2024년 6월 입주

청약통장 주택소유 여부 실거주 의무

43B3 Type



42B2 Type

직장인, 신혼부부, 무주택자 실입주금 7천만 원대로 내집마련	
분양가 (기준층 기준)	● 4억 5천만 원
대출	● 독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출 80%
실입주금	● 7천만 원대
파격혜택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발코니 확장 무상 ● 가전 옵션 무상제공 등 +α(한시적 적용)

귀한 소형 아파트 갭투자 6천만 원대로 재테크, 시세 차익은 '뎀'	
분양가 (기준층 기준)	● 5억 1천6백만 원
전세 보증금	● 4억 4천만 원 (예상)
실투자금	● 6천만 원대
파격혜택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발코니 확장 무상 ● 가전 옵션 무상제공 등 +α(한시적 적용)

특·장·점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병풍아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도보 4분, 2호선·신안산선(2025년 초 개통) 구로디지털단지역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인접 - 4개 노선 퀴드러플 역세권
- G밸리(구로·가산디지털국가산업단지) 약 15만 명 상주 직주근접 풍부한 배후 수요 확보, GTX D노선(가산역 예정)
- 구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도보 1분, 영서중학교 도보 통학권
- 구로이마트, 고려대구로병원, 가산패션아울렛, 재래시장, 수영장·피트니스센터
- 가리봉 신통기회 1, 2구역 3,800세대 확정(보상, 이주 준비 중) → 천지개벽 중
-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m²당 3,787만원...1년새 24% 상승

월세·전세·이사 걱정 끝! 실입주금 7천만 원대로 내집 마련, 지금이 기회!

문의 전화 | 02)876-4004

퀴어축제 반대 위한 '거룩한방파제 철야기도회' 열린다

4월 5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오산리최자실기도원에서 올해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10주년 그 열매로 동성에 축제 범람하지 않게 하서 예수님처럼 철야기도회 영적전쟁 승리해야

오는 6월 1일 서울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 행사를 비판하며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해 온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도원에서 4월 5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연합 금요철야기도회를 갖는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올해 10주년을 맞는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위해, 그리고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 행사를 비판하며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해 온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도원에서 4월 5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연합 금요철야기도회를 갖는다. 기도회에선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독교운동 대표), 박호중 목사(데크로스처치 담임), 김원평 교수(진평연), 조영길 변호사(자비바 대

표), 김형석 목사(필그림교회 담임)가 말씀과 특강을 전한다. 주최 측은 "올해 2024년 6월 1일 동성에 축제가 또 서울에서 개최된다"며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동성에 축제를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로 10년 동안 싸워왔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동성에 축제가 범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동성의 축제가 이제는 서울광장에서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거룩을 위하여 함께 연합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방파제를 씀으로써 동성에 차별금지법을 막아 서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 서 끝내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한국교회가 되고 깨끗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끝까지 쓰임 받는 존귀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왜 철야기도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겻세마네 동산에서 팻방울을 팻방울 같이 흘리시면서 철야기도를 하셨기 때문"이라며 "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기 전에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를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중요한 영적 전쟁을 할 때 예수님처럼 함께 철야기도하고 승리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총선을 앞둔 중요한 이때,



지난해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집회가 열린던 모습 ©기록일보 DB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 '거룩한방파제 연합 금요철야기도회'에 초청한다"며 "연합 금요철야기도회에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거룩한 위정자들을 세우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학생인권조례 상위법 역할? '학생인권보장법안' 입법예고

강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성적지향' 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

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교사의 권리 제한을 명시해 지방자치법상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특별법안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을 역할로서 발의될 예정인 것

로 보인다. 강민정 의원 등 11인은 특별법안 제안 이유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지방자치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확고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다"며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교직원들은 동성애 등의 보건적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이 금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제15조(사생활의 자유)에서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교직원 및 보호자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 다수 학생인권조례들은 사생활의 자유를 적시해 교육자의 담배 등 학생 유해물품 소지 여부 검사도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른 교권 침해 우려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해 7월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권의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별법안의 제8조(양심종교의 자유) 3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기독교사학의 건

제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문	제안특기
212616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연합)	2024-03-26	교육위원회	2024-03-27	2024-03-29~2024-04-12		제22대(2024~2028) 제4차(3회)
제안 이름 및 주수신처		이전처		이전처			
제안이유							
2023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22년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생인권은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추후에 법질,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그 내용이 충실함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 발생하고 있다. 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조항, 조항의 명칭,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을 가리키는 표현(제23조) 등이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기독교사학의 건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조항, 조항의 명칭,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을 가리키는 표현(제23조) 등이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기독교사학의 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학이람에 따른 기독교 교육 위축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 법안은 제30조(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그 자격 요건으로 교사 이외에 교육계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학생인권옹호관 후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법안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사람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34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3호), 제35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항의 조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권고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4호 5항).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연대가 달렸다. 공 모씨는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에 씌워 아이들의 성장 체성을 혼란케하고 동성애를 조장함으로써 건강한 양성의 평등과 존중을 혐오하게 만들어, 결혼·가정·사회·나라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이 모씨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은 아직 온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교육과 사랑 및 훈육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키워내야 한다. 생물학적 성에서 근거하지 않은 제3의 성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반대"라고 했다. 공 모씨는 "학생들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지품 등의 검사금지 및 성적지향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합법이 되어 학생의 교내 마약·흡기소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파악할 수 없다"며 "공교육이 무너지는 방관의 학교가 되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김 모씨는 "기독교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기독교학교를 창립하고 교육하기 위한 사람들의 원의도가 묵살된다"며 "본인이 기독교학교를 선택해 입학했지만 학교가 그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역할"이라고 했다. 또 다른 김 모씨는 "학생인권회, 학생인권센터, 학생 인권 옹호관 설치 등으로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이런 법안 제정 반대"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정부-의료계 한 발씩 양보해 속히 의료현장 정상화 되길"

살롬나비 논평

살롬을 꾸꾸는 나비행동(살롬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최근 의료 사태에 대한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전공의 이탈 7주차인 상황에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매년 2천명 증원이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이나 '의료계가 더 좋은 안을 내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논의 여지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성인답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며 "전공의들은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의료개혁은 의사 수의 증

원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며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에는 가지 않는 이유가 지방 의료와 인프라 시설의 결핍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 수 증원과 함께 필수분야 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 시설과 인프라 시설의 뒷받침이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저절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수 증원 및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외에도 약이나 백신을 만드는 의사 과학자 양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필수의료와 의료공급이 왜곡된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 이

부분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의료수가를 올려주어야 한다. 여기에 보험제정을 아껴서는 안 되며, 그래야 국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관료주의적 고자세를 버리고 이 분야 전문가인 의사들의 견해를 경청해 국가백년대계의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라는 공공재는 국민의 생명에 다루는 일이라는 점을 잊고서라도 공공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하루 속히 의료현장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바 같이 합리적 의료계의 의사를 대폭 반영하여 이번 의료개혁을 유연하고 슬기롭게 시행함으로써 항간에 제기된 불통 대통령 이미지를 씻고 초심의 국민친화적 소통의 지도자로서 새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영 기자

Lead by 신한카드

“구원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인터뷰] 책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출간 베이직교회 담임 조정민 목사

조정민 목사가 사무하는 베이직교회는 2013년 설립돼 현재까지 자체 소유 건물이 없고, 스튜디오 공간을 임대해 예배드리고 있다. 하지만 조 목사가 접래하는 아침예배와 주일예배의 각 유튜브 영상 평균 조회수는 4만회를 상회한다. 특히 이 교회는 매달 마지막주에 온라인 예배인 ‘뭇별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 건물에서의 모임보다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흠뻑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한다.

베이직교회엔 새신자만 출석할 수 있는 독특한 점도 있다. 이 교회 홈페이지 소개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세워진 교회”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서 섬길 것을 부탁드린다”고 적혀있다. 교회 명칭인 ‘BASIC’도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의 앞 대문자 글자를 딴 것으로, 이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형제자매로 부른다.

조정민 목사는 25년 동안 MBC 방송국에서 기자와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 생활을 역임하다 지난 2004년 퇴직했다. 조 목사는 아내가 정기적으로 새벽예배를 드리러 가던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를 광신도 모임으로 의심하며, 취재차 잡았다 예배 중 들은 찬송가 539장 ‘주 예수께 조용히 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심한 일화는 익히 알려져 있다. 조정민 목사는 본지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실 기자 시절 더 행복했다. 그러나 태양을 본 것이 화근이다. 진리를 만난 것”이라며 “진리에 눈뜨면 거짓된 과거로 못 돌아간다. 그리고 더 이상 촛불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본지는 최근 조정민 목사가 출간한 책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출판사 두란노)을 중심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며 매사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이들을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 목사와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

-자기부인과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조정민 목사님은 책에서 감사를 잃은 신앙이 반그리스도인의 표지 중 하나로도 말씀하셨는데요. 감사가 신앙에서 핵심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고 소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아감은 방향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한 태도, 자기 성취를 위한 목적, 성공을 위한 갈망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동기의 죽음이십니다. 죽은 결과가 자기부인입니다. 자기부인은 죄의 몸이 죽으면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맞게 되는 자기부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하여 창조하신 새사람입니다. 그의 입술은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넘치게 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 헌신을 열심히 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만큼 믿음이고, 믿음만큼 기쁨입니다.”

-특히 목사님은 책에서 이기적 그리스도인, 낙심한 그리스도인, 음란한 그리스도인, 섬섬한 그리스도인, 불만인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 등 7가지 키워드로 반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위와 같이 반그리스도인의 7가지 표상을 뽑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히 섬섬, 낙심, 불만은 신실하게 다가옵니다. 이 세가지를 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점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의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빚는 이유에 주목하면 이런 점들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자아의 죽음이 진실이라면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새사람 안에서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죄의 습성은 무엇일까요? 일곱 가지 키워드는 그 대표적인 습성입니다. 그 습성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교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불신자들의 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 그 습성은 반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섬섬함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킵니다. 정말 섬섬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쉽게 숨어 낼 수 없는 가라지와 같이 뿌리뽑기가 어렵습니다. 대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자리 차지 못해서 꿈틀대는 섬섬함은 시기, 질투, 분노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낙심할 수는 있지만 낙심에 오래 머무르는 것, 불만이 잠시 스쳐갈 수 있지만 불만이 불평이 되고 비난이 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조직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는 기괴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저들이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눈치 채지만 정작 교회 안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주 하나님께도 섬섬함과 낙심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정의와 이를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성숙이란 내 생각을 점점 더 적게 하고, 주님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걸린 나를 보고도 사실 죽지 않는 것이 내 자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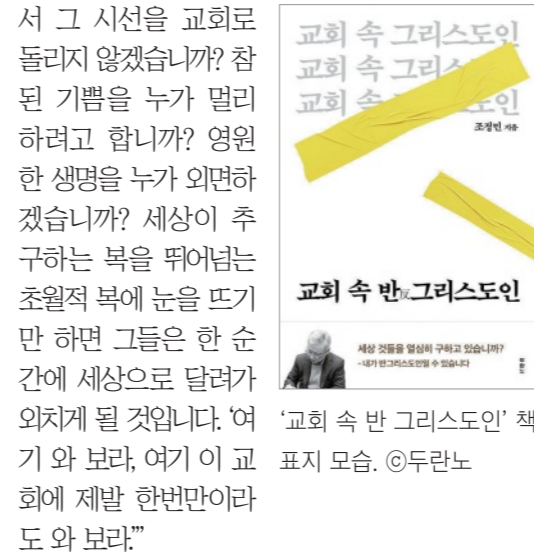


조정민 목사 ©베이직교회

니다. 마치 머리에 못이 박히도 꿈틀거리려는 파충류를 연상케 됩니다. 바울의 탄식은 우리 모두의 신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문제는 내 생각 안 하겠다고 애써야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 더 하는 것, 예수님 말씀 더 많이 묵상하는 것, 그 길 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이외에 복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사는 것은 급류가 흐르는 강을 건널 때 무거운 돌 하나 안고 가야 떠내려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야 사망에 집중하고 끝까지 완주합니다.”

-책에서 ‘한국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 많아서 이유가 전국 소망과 부활을 놓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구해온 삶의 축복을 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데 원인이 있다고 보시지요?

“경건이 말하는 복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구약의 복도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 이미 주어진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길은 더 이상 복에 목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팔복입니다. 세상이 기피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 복의 절정입니다. 개인 구원을 사회 구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복의 목적입니다. 언제나 복과 구원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만약 그 두 가지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의 외형이 아무리 커져도 교회가 세상과 접촉하는 외연은 점점 작아지고 맙니다. 세상은 교회가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외면하겠지요. 그러나 부활생명이 초래하는 천국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고 삶으로 만질 수 있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더 이상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흘러넘치는 생명력을 전파하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누가 이 생명의 뿌리를 점점 메마르게 하는 세상에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책 표지 모습. ©두란노

서 그 시선을 교회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참된 기쁨을 누가 멀리하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뛰어넘는 초월적 복에 눈을 뜨기만 하면 그들은 한 순간에 세상으로 달려가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와 보라, 여기가 교회에 제일 한번만이라도 와 보라.’

-목사님은 책에서 ‘때가 악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으로 한국교회 중 사명을 이뤄가는 부분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보다 봉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기록됐는데요. 말씀 전파보다 교회 봉사를 강조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점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직통계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봉사와 구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교회 전부를 불사르게 내주어도 헛일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종교적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주님과과의 관계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이 없다면 모든 사역은 갈등의 뿌리가 되고 공로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길 때 그 섬김과 봉사는 사역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야 모든 일을 하고도 무익한 중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빛이자 생명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성도 안에 장막을 치시도록 우리의 내면을 비워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터럭만큼도 성결하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어 찢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돌려놓기까지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죄인의 습성에 찌들대로 찌든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베이직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지 않고, 초신자만 등록할 수 있으며, 흠뻑이는 예배인 ‘뭇별 예배’를 드립시다. 이를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체 건물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서 묶이면 없이 지낼 수도 있고, 없어서 묶이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기억하고자 없이 지내고 있을 뿐입니다. 새신자나 초신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까닭은 빌려 쓰는 공간의 제약 때문이어서 기신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뭇별예배도 같은 맥락에서 부탁드립니다. 주일에도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나 소그룹예배를 드림으로 공동체예배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회됨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일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선한 이웃들의 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개교회주의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베이직교회가 주일 예배 이후마다 진행되는 ‘아름다운 동행’에서 조 목사님께서 받은 가장 인상 깊은 질문과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교 후에 실시간으로 예배 참석자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분들의 질문을 받고 이에 답하는 일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설교자로서는 큰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자 하며, 마땅히 물을 곳을 찾지 못한 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스스로 성경 속의 답을 찾아가도록 잠시 교량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 결정입니다.

인상 깊은 질문은 ‘당신은 해를 것 다해보고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와보니 사공창이어서 얘기해드린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꼭 경험해보겠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깨져 봐야 아픈 것을 알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일찍 예수님 만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 복을 알면 세상이 말하는 가짜 복에 절대 속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끝으로 조정민 목사님은 MBC 방송국에서 25년 동안 기자와 주말뉴스 앵커를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목회자이십니다. 기자 생활과 지금은 비교한다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기자 시절이 더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이고, 기대한 만큼의 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본 것이 화근입니다.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진리에 눈뜨면 거짓된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촛불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다기보다 진실로 기쁩니다. 그리고 더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기적 앞에서 어떤 것도 더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Good News를 알고서도 다시 Bad News를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고 그 가치에 흠뻑 젖어 살면서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절대 사역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절대 직업이 아닙니다. 이 일은 자녀됨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같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면 절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형구 기자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 등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란?

연구개발 및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진단 및 고도화, 해외진출 등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통해 평균 매출액 12%, 연구개발비 33%, 수출액 7%, 고용창출 6% 증가(*22년 기준, 30개사 평균)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2024년도 혁신형 물기업 모집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4. 4. 12.(금) 18: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innowater@kwp.or.kr)

지원내용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75백만원, 5년간 지원

1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 기업 현황진단 및 R&D 전략 설계 지원 • 연구시설 개선 지원 • 제품 상품화 제작지원	2 혁신기술 해외진출 •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3 판로개척 •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	--	---

문의처
한국물산업협회의 혁신형물기업 담당자(02-2634-6784 / innowater@kwp.or.kr)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3가지 증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제이슨 지메네즈(Jason Jimenez)가 쓴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아오셨다는 3가지 주요 증거'를 게재했다.

제이슨 지메네즈는 미국 스탠드 스트롱 미니스트리(Stand Strong Ministries)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저명한 기독교 세계관 연설가이자, 서밋 미니스트리(Summit Ministries)의 교수이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1.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증거

오늘날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증거를 부인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심지어 바르트 에르만(Bart Ehrman), 제임스 타보르(James Tabor), 알레인 파겔스(Elaine Pagels)와 같은 자유주의 학자들도 로마의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보냈다는 정경 기록이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또 다른 강력한 지지자는 데이비드 F. 슈트라우스(David F. Strauss)이다. 많은 복음서 이야기를 신화라고 여겼던 독일의 자유주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살아났다는 걸 보기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주장을 인

정했다. 슈트라우스는 그의 저서 『예수님의 새로운 삶(A New Life of Jesus)』에서 “무덤에서 반쯤 죽었고, 약하고 병들어 치료를 받기 위해 가야 하며, 붕대를 싸매고 부축해야 하고, 관음이 필요한 존재, 마침내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사람을 무덤 밖으로 훔쳐내어 제자들에게 그 분이 죽음과 무덤을 이기는 분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를 확정하는 초기의 독립적인 자료들로 인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경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쓰여 있는 초기 신앙고백과 전통(예: 고린도전서 15:3-8) 외에도 요셉우스(Josephus), 로마의 클레멘스(Clement of Rome), 이그나티우스(Ignatius), 타키투스(Tacitus), 탈무드(Talmud), 사모사타의 루시안(Lucian of Samosata) 등 정경이 아닌 다수의 출처들이 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가 생존했거나, 자신의 죽음을 조정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이 분명해진다. 몇 가지 잘 알려진 역사적 및 의학적 사실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에도 생존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명백히 없애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극심한 유체적 고통을 견뎌냈다. 누가는 예수님이 조혈증(hematirosis)을 경험했다고 전하며, 이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인해 땀샘 근처의 혈관이 터져 피와 땀이 섞이는 드문 의학적 상태를 일컫는다(눅 22:44). 예수님은 체포된 후 병사들에게 잔혹하게 구타를 당했으며, 그분은 어깨부터 발목까지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해 근육 조직이 찢어지고, 장기마저 노출되었다(마 27:26, 막 15:15, 눅 22:63-65, 요 19:1). 예수님은 등에 나무 대들보를 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나아갔다(요 19:16-17).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까지 그곳에 남겨졌다고 33-37절에 설명되어 있다. 요한은 병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요 19:33),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흐르게 하였다”(19:34)고 덧붙였다.

2. 빈 무덤과 죽은 이후 모습들의 초기 증거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빈 채 발견된 것은 부활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사도 바울의 글과 정경 복음서를 포함한 여러 초기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고한 사실이며, 이 모든 것들은 주후 80년 이전의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주후 55년경 기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초기 신조(예수님의 부활 후 5년 이내에 퍼져 나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제시한다.

“예수는 게바(베드로)에게,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그리고 나서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으나 몇몇은 잠들었다.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후에 나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도 나타나셨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단순히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과 대화하고 교감했으며, 이들의 존재는 빈 무덤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 증인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녀는 소수의 여성들과 함께 예수의 무덤에 처음으로 다가갔는데, 거기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 설명의 중요성은 당시 여성의 신뢰도가 낮고 법적인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제자들이 여성들을 그러한 주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조작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더욱이,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의 만남을 대담하게 제자들과 다른 이들 앞에서 공유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임을 더욱 입증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제자들] 보기에는 그들의 말이 허탄한 이야기로 여겨져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에 넣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 여인들이 최초의 목격자로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이 처음에 그들의 보고를 믿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 후 목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다른 설명(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이 존재하는 것은 빈 무덤을 가리키는 증거의 강력함을 강조한다(마태복음 28:11-15). 심지어 7세기 이슬람교도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신성시하거나, 십자가형으로부터 기적적인 탈출로 설명하고자 했다(수라 41:57-8).

사신이 없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분이 목격되었다는 다양한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대안적인 설명은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음을 더욱 뒷받침한다.

3.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있지만, 특히 마지막으로 설득력 있는 증거 중 하나는 제자들의 변화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리고 낙담한 추종자에서 담대하고 확고한 부활의 진파자들이 변모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들의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박해와 심지어 순교까지 가까이 견디어 낸 것은 그들의 확신이 진실함을 보여준다.

극심한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급속한 확장을 보였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기독교 운동의 성장과 확산은 부활의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진리에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기꺼이 감수한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증거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그것이 일종의 신화나 전설로 치부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서의 설득력 있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유진 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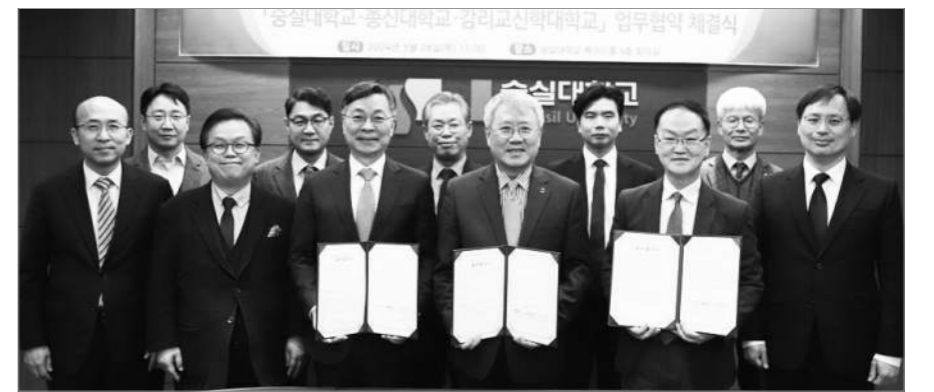
송실대·총신대·감신대, 한반도 통일·북한선교 관련 교류 증진 MOU 체결

최근 송실대 베어드룸 4층 회의실에서 송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세 대학이 함께 협력해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선교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학술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통해 △통일 및 북한선교 관련 공동연구 및 발표 △통일 및 북한선교 관련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추진 등의 협력사항을 약속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송실대학교 장범식 총장은 이 자리에서 “세 대학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명에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를



송실대·총신대·감신대, 한반도 통일 및 북한선교 관련 교류 증진 MOU 체결 ©송실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실대 장범식 총장을 비롯해 다수의 교수진과 총신대 박성규 총장, 감신대 유경동 총장 등 각 대학의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의 중요성을 굳건히 했다. 노형구 기자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 2024 제1차선교지신학교육정책포럼에서 발표

‘선교지 신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의 네트워크 및 협력’ 주제로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이 지난달 캔싱턴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2024 제1차 선교지 신학교육 정책 포럼(이하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정책 포럼은 13개 신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 철학에 대한 공유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열렸다.

황덕형 총장은 22일에 정책포럼에서 ‘선교지 신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의 네트워크 및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 총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한반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감사



2024 제1차 선교지 신학교육 정책 포럼에서 황덕형 총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신대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교단 신학교들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각

신학교가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온누리교회, 15일 ‘THE 행복한 3040세대 맞춤형전도 세미나’ 개최

서울 용산구 서빙고 본당에서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가 두란노바이블칼리지와 사단법인 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과 함께 ‘THE 행복한 3040 맞춤형전도 세미나’를 오는 15일에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전도 대상자 연령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결신 방법을 모색하며 공동체 역할을 소개해 전도 실행에 옮기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그룹 모임별 3040세대 초청 맞춤형전도 기획인 4인1조 전도전략 세우기를 비롯해 ‘맞춤형 생활 속 전도 콘텐츠 활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에게는 ‘복음명함도’ 제작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전도본부 소속인 한 교인

은 이번 세미나가 교회의 허리세대인 3040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형구 기자



KB금융그룹 | **세상을 바꾸는 금융**

증권사 PB

한 명쯤은

알면 **좋아요**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누구나 전화나 특으로 똑똑!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누구나 전화나 특으로 똑똑!

투자할 땐 꼭! **개비증권**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은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인원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장보험에 따라 예금보장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치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종목당 0.015%/모바일 0.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연결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 *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중금되며,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중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중정 이벤트' 공지 참조) *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KB증권

“크리스천의 올바른 정치관, 하나님의 가치 지키는 것”

책임는사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치관’ 주제로 강연

사자그라운드 대표 책임는사자가 최근 양평 라이프하우스센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치관’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아테네)로 전도여행을 간 장면이 나온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화가 났고,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 토론을 했다”며 “쉽게 말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성도들을 앞에 두고 토론을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토론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들에게 논증과 변증을 했다”고 했다.

이어 “즉, 대한민국 도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기류가 강하여 영적인 거룩한 의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 교육을 하고, 세상에 나와 대학교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전지적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변론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일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거룩한 영적인 반응을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청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아연하고, 다음날 학교에서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에 아연한다. 뜨겁게 찬양하지만 두 가지 버전의 아멘을 똑같이 하면서 어떠한 영적인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책 대표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것을 알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합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견지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그런데 다음 세대에 부흥을 논하면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실질적인 이유인 페미니즘, 유토피적 여성주의, 진화론, PC주의 등 요즘 친구들이 복음처럼 받아들이며 빠져 나가면 이것이 왜 성경적으로 틀렸는지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며, 주일에 아멘하고 평일에 학교에서도, 투표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 왕이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과 총명함으로 눈이 뜨여야 한다”며 “나의 경험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로 경외하는 살아 있는 기독교인이면 어떻게 투표를 해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흘러가는지 깨

우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이때 그 유명한 좌파와 우파가 구분된다. 저에게 좌파는 무신론자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넌크리스천분들이 생각하는 교리와 정책과 철학과 이론과 사상의 흐름”이라며 “우파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쪽”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파는 하나님적 가치를 지킨다. 일남일녀의 결혼을 현재 헌법은 지지하는데, 이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좌파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정의를 세속적인본주의적으로 제 정립하려는 운동과 그것을 법제화하고 그 기류를 아멘하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 대표는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라고 한다. 여기서 미국식 보수주의가 가지는 원칙을 알아야 한다”며 “원칙 첫째는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된다. 그 도덕률의 기원은 인간을 넘어선 지혜 즉 신의 정의다’라고 한다. 미국식 보수주의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문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는 게 정치의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덕을 따져 도덕성은 종교성을 띤다”며 “예를 들어 ‘결혼은 이게 결혼이야



책임는사자가 강연을 하고 있다. ©책임는사자

‘아니 저게 결혼이야’라고 했을 때 영적 전쟁이 반영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싸우는 자, 영적 군사라고 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가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인간이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픈게 하며 이것을 법제화하고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뇌시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 서서히 안티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것과의 전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 “청년 이승만이 신학과 외교 등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 깨달은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승만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고

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영성은 고통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으로 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학술적으로 완전히 겸비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 전 임시국회를 만든다. 대한민국 첫 번째 공식회의에서 이승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이윤영 의원에게 지도를 요청했고, 그 당시 목사님이셨던 이 의원이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우리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프로세스는 우리 국민이 여당과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책무가 설정된다”며 “사탄의 방해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폭발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책 대표는 “총선 전망을 하면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다. 그러나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두워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시작된 것”이라며 “백 년 전 어떤 청년(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세웠고, 예수교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는 동양의 예수교, 예수 문명을 전파할 책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다음 세대 부흥을 바란다

고 하면서 다음 세대가 평일 사회에서 우리가 바쁘다고 할 때, 공교육과 문화 콘텐츠로 사탄의 설교에 빠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찬양집회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좋다. 그러나 학교에 가면 사회진화론에 빠져 아멘하며 끌려가고 있다. 누군가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고 했다.

그는 “표면적인 총선도 중요하다. 우리가 깨워야 한다. 기도하는 동시에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야 한다”며 끝으로 프랑스 위그노의 한 사례를 비롯한 순교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책 대표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주셔야만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인”이라며 “평일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높여 찬양할 때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정치이다. 현실 정당의 우파와 좌파가 아니라 원리 원칙과 영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실 정치에서 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피하든지 핍박당하든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된다”며 “행복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이라며 한국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장지동 기자

부활절 맞아 22개 교회 1,966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3월 한 달간 각 교회서 생명나눔에배 드려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가 3월 한 달간 부활절을 기념해 전국 22개 교회, 1,966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지난 3월 17일, 인천시 서구 선두교회(담임 박수관 목사)는 총 3부에 걸쳐 생명나눔에배를 드렸다. 박수관 목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밀알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분이며, 장기기증이야말로 밀알의 삶과 가장 닮은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며 “사도바울을 통해 하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롬 12:1)는 말씀처럼 죽음의 순간에 나의 몸의 일부를 나누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도가 되자”라고 권면했다.

이에 290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 2012년 한 차례 생명나눔에배를 드리며 512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선두교회는 현재 누적 등록자 수가 800명을 넘어섰다.

이어 3월 24일, 서울시 강동구의 은혜광성교회(담임 박재신 목사)는 종려주일을 보내며 총 4부에 걸쳐 첫 생명나눔에배를 드렸다. 박재신 목사는 “장기기증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까이 그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사명”이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표징으로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전했다. 이에 성도 354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한 은혜광성교회 성가대원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다.

3월 31일 부활절을 기념해 생명나눔에배를 드린 경기 수원시 송원교회(담임 조경래 목사)도 총 4부에 걸쳐 생명나눔에배를 드렸다. 조경래 목사는 2010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사실을 전하며, “천국을 향한 때 육신은 흠으로 돌려보내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새몸과 더 강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생명나눔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그 결과 성도 200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송원교회는 2011년에도 생명나눔에배를 드리며 성도 220명이 희망등록에 함께했다.

이 밖에도 태실교회(담임 심형식 목사), 세현교회(담임 송성용 목사), 부평중부교회(담임 신경석 목사), 우리교회(담임 강연만 목사), 고산교회(담임 임성식 목사),

신명교회(담임 백호현 목사), 새영광교회(담임 이근영 목사), 태장성결교회(담임 김동오 목사), 큰기쁨교회(담임 이준엽 목사), 아름다운교회(담임 김성식 목사), 서북교회(담임 임성호 목사), 하늘이음교회(담임 이상일 목사), 한밭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진 목사), 동산교회(담임 이성욱 목사), 삼보교회(담임 변철 목사), 원당성결교회(담임 이명화 목사), 평화교회(담임 김재욱 목사), 신성교회(담임 김윤태 목사), 보목교회(담임 권순현 목사)도 생명나눔에배를 드렸다.

본부 박진탁 목사는 “부활절을 기념해 생명나눔 운동으로 이웃을 섬기며 우리 사회에 사랑을 흘려보낸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부활생명의 기적이 장기부전 환자들에게도 닿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명나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군산시·군산YMCA, 저출산 현안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

군산YMCA가 최근 군산시청을 방문해 강임준 군산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군산YMCA 조성호 이사장과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군산시청 소년문화의집, 한마음지역자활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선 군산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됐는데, 이 가운데 최근 저출산 위기 관련 인구 증가 정책 사업을 위한 협력과 지원 요청이 있었다. 특

히 강임준 시장은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인구정책에 대한 협조와 청년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군산시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들을 위한 드론 사업에 대한 협력을 건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군산YMCA는 창립 78주년을 맞아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YMCA는 창립 78주년 기념



간담회를 마친 후. ©군산시

과 비전선포식을 오는 20일 오후 2시 중동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워진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이벤트 기간 후 판매처별 사용 결과 (시행기간: 2023.01.26~2023.03.10 | 연령대상: 성인 여성 30명 | 시행기관: [연구기관명])

동부교회협의회 부활주일 새벽 연합예배 “부활과 나 그리고 우리”

우천에도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 노래하고 십자가 통한 화목 다짐

동부교회협의회(회장 박선호 목사) 부활주일 새벽 연합예배가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오전 5시 30분에 열렸다.

목도와 기원, 우영화 목사(동부사랑의교회)가 대표기도, 홍중수 목사(나성한미교회)의 ‘로마서 5장 8-11절’ 성경봉독에 이어 동부교회 연합성가대의 힘찬 찬양이 이어졌다. 이후 송병주 목사(선한침지교회) 송병주 목사가 ‘부활과 나 그리고 우리’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고 내 안에 나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한다. 사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한번 더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개념이다”라고 운을 댄 송병주 목사는 갈

라디아서 2장 20절을 언급하며, “영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다. 두번째 의미가 문법적으로는 원어에 더 가깝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들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또한 그 아들이 믿으시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송 목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면 이런 연약하고 죄악 되고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잘 믿고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내가 주님을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믿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동부교회협의회 부활주일 새벽예배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된 것임을 깨달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 그 은혜를 알고 나면 도저히 나의 믿음과 행위를 자랑할 수 없게 된다. 그때부터 한없는 은혜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

어야 하는 것은 율법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죄 뿐 아니라 죄로 인해 혹은 다른 이들로 인해 받은 상처, 배신감, 아픔, 열등감도 모두 죽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이런 감정들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병주 목사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붙어야 하는 것은 내 가슴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주님을 십자가에



동부교회협의회 부활주일 새벽예배에서 송병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못 박을 때 함께 못박아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을 게 죽고 살아 날 것이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할 게 죽고 죽어야 할 게 계속 산다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굉장한 상처만 주고 받는다. 믿음 대신 사랑이, 죄 대신 구원의 감격이, 열등감 대신 자족하는 마음이, 중독 대신 새로운 열정이, 원망 대신 감사가, 원수된 마음 대신 화목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부활하

길 바란다. 마음이 사람이 되고, 반목이 화목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이 아닐까?”라고 권면했다.

예배는 봉헌과 광고, 그리고 축도로 마쳐졌다. 이날 헌금은 오랜 전쟁으로 집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와 지방 교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쓰인다.

김민선 기자

유명 美틱톡커, 세레 받은 후 계정 삭제...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미국 일리노이 출신의 전 온라인팬츠(OnlyFans) 여성 모델이 회심한 후, 세레를 받고 성인물 연예계를 떠났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4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나라 레이(Nala Ray)는 최근 자신의 과거 게시물들과 틱톡(TikTok) 및 온라인팬츠 계정을 삭제했다. 그녀는 지난해 12월에 자신이 기독교 세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녀는 지난 2월 25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무엇을 말했든, 또는 믿었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레이는 최근 폭스(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목사의 자녀로 자랐으며, 2020년에 온라인팬츠로 진출하면서 정형외과 스케줄러로서의 직업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이트에서 상위 1%의 수익을 거두며 빠르게 유명해졌지만, 이는 삶의 방향에 대한 심각한 재고로 이어졌다고 한다.

해당 사이트는 음란물 콘텐츠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창작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성적으로 노출된 사진, 영상 및 공연을 업로드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024년 2월 25일, 전 온라인팬츠 모델 나라 레이가 침례 의식을 받고 있다. ©@Naladaddy/TikTok

레이는 음란물 산업의 착취적인 성격을 목격하며, 특히 남성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수익을 취하는 방식에 대한 한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 산업을 홍보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일부를 빼앗으려는 남성들이다. 이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여성

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몸을 노출시켜 남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일부를 차지하게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마치 포주를 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레이의 영적 회복의 여정은 작년 10월 틱톡을 통해 만난 목실한 기독교인 남성과의 대화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 남성이 기도와 성경적 지도를 통해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는 남녀 간의 로맨스가 아닌 영적 멘토로서 그녀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는 “나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아, 하나님, 내 삶은 엉망이고 너무 외롭다고 느껴져요. 이젠 내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생각했다’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마침내 나는 12월 말에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 이후로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이 방으로 와서 ‘그래,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했다.

레이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소셜 미디어

에서 미화되어 있지만, 고수익을 거두는 창작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월평균 수입이 180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광고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하지만 여성들이 이런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더욱 싸우고 싶다”고 했다.

온라인팬츠를 떠나기로 한 레이의 결정은 세무 서류를 기다리는 등의 절차 문제가 남아 있어, 계정은 일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녀는 해지 과정이 끝나는 대로 플랫폼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기독교 영상을 게시했다고 한다.

그녀의 세례 영상은 틱톡에서 4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시청자들은 그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축하했다.

레이는 자신의 성적으로 부적절한 옷들이 든 13개의 옷 가방을 모두 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유사한 진로를 고려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며 음란물 사업의 기만에 대해 알리겠다고 전했다.

유진 김 기자

연합장로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부흥회’ 열린다

5일-7일까지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 초청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손정훈 목사)가 ‘창립 47주년 기념 부흥회’를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교회 본당에서 개최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는 서울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부흥회는 △5일(금) 저녁 7시30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라(겔 36:36-37) △6일(토) 새벽 6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라(요일 1:7), 저녁 7시30분 이것이 바로 영력이다(왕하 6:10-19) △7일(주일) 1-4부 당시는 지금 행복하십니까?(신 33:29) 등으로 각각 말씀을 전한다.

손정훈 담임목사는 이번 부흥회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47주년을 맞이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더욱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더 많이 나누고 선교하는 교회로 온 교인이 힘을 합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부흥회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65세 나이에 조기 은퇴한 김은호 목사는 1989년 서울 강동구 길동 상가 2층에서 개척한 이후 35년 동안 오륜교회를 이끌어 왔다. 특히 1998년부터 시작해 매년 11월 21일간 매일 저녁 이어지는 다니엘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넘어 전 세계 1만 5천 교회와 함께하는, 한국교회 대표 브랜드 중 하나가 됐다.

한편 김은호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개혁신학연구원 신학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목사지도자과정 수료, 아신대 신학대학원 명예철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DNA ministry 대표, 오륜교회 원로목사(설립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GOOD TV 공동대표이사,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뉴스웨이브25 제공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비위원회 심의필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안연차>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와 계약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신용보증기금 제120호)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채권보증을 위해 매 결산까지 내부통제를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글로벌선진학교 “미네르바대 포함 세계 우수대 장학생으로 대거 합격”

3일 GEM·GVCS글로벌선진학교 2024 교계 기자간담회 개최
4월 13일, 가을학기 학생 모집을 위한 학교 입학설명회

“평범한 학생을 비범한 인재로라는 모토로 다양한 학업성취도의 학생들을 변화시켜 매년 세계 우수 대학 장학생 등으로 대거 진학시켜 온 글로벌선진학교가 “2023-2024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에서도 우수한 대학 진학 결과를 거뒀다”라고 3일 밝혔다.

(사)글로벌선진교육·글로벌선진학교(GEM·GVCS)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연재 별관에서 2024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말까지의 국내외 대학진학 결과와 4월 13일 오후 1시 음성캠퍼스, 오후 2시 문경캠퍼스에서 열리는 가을학기 학생 모집 계획 등을 밝혔다.

GEM·GVCS는 “올해 문경캠퍼스는 경쟁률 100대 1인 세계 최고 혁신대학인 미네르바 대학에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US NEWS 랭킹과 QS 세계랭킹 기준 상위 랭킹학교로 상당수 학생이 진학하는 동시에 상당액의 장학금을 약속받았다”라며 “3월 29일 현재 졸업생들이 전 세계 우수 대학에서 약속받은 장학금 총 액수는 한화로 약 60억 원(중복 포함)에 달한다”고 말했다.

GEM·GVCS 남진석 이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글로벌선진학교 신입생들은 일반적으로 과학교, 외고, 민사고에 입학하는 상위 1%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저희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만들어낸 진학 결과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해외대학 정시전형이 끝나지 않아 4월 말까지 지켜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선진학교 2024 대학 진학 결과

글로벌선진학교 졸업생들의 상당수는 매년 US NEWS 랭킹과 QS 세계랭킹에서 상위 랭킹학교로 진학하는 동시에 상당액의 장학금을 약속받고 진학하고 있다. 특별히 최근 급부상한 대표적인 혁신대학인 미네르바 대학교(Minerva University)에는 올해 문경캠퍼스에서 2명의 합격자를 냈다. 이는 국내 최고 STEAM 교육기관으로서, STEAM 융합 교육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전문 트랙별 교육과정을 실행시킨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1. 4월 말까지 세계 명문대학 진학 결과 추가 발표

올해 음성, 문경, 미국 캠퍼스 학생들이 각 대학으로부터 약속받은 장학금은 3월 29일 현재 한화 약 60억 원(중복 포함)이다. 오는 4월 말까지 주요 대학의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약속받은 장학금 액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륙별로는 북미권(미국, 캐나다) 50여 개 대학, 유럽권(5개국) 10여 개 대학, 아시아-오세아니아권(5개국) 10여 개 대학, 국내 23개 대학에 합격생을 배출했다. 북미권 주요 합격대학은 앞서 언급된 미네르바 대학교를 포함해 세계 최고 기독교대학으로 꼽히는 휘튼(Wheaton) 대학이었고, US News 기준 50위권 이내 상위권 대학으로 존스홉킨스 등 다수가 있다.

2. 우수한 학생들, 유럽과 아시아권 대학에 상당수 진학

GEM·GVCS는 국내 및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북미대학에 비해 비교적 학비가 저렴하면서도 각 권역에서 최상위 대학이거나 전공 분야별로 우수한 유럽권, 아시아권 대학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진학했다고 밝혔다. 전공 분야에서는 주로 농생명과학, 의료보건, 엔지니어, 관광 등에서 상당한 장학금을 약속받고 진학할 예정이다. 남진석 이사장은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랭크되는 홍콩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유럽 대학은 아시아나 미국처럼 서열화되지 않고 전공 분야별 우수학교들이 숨어 있어 학생들이 전공을 찾아 장학금을 받으며 진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 문경캠퍼스 축구부 진학 결과 ‘학업과 축구’ 두 마리 토끼 잡아

올해 축구부로 졸업하는 학생은 총 6명으로, 축구 실력과 학업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원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및 전국 대학간 체육협회(NAIA)의 Division 1-3에 속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은 스포츠트랙 전문 진학지도교사의 지도로, 현재까지 대학 4년 동안 김0현 학생이 184,000달러(한화 약 2억 4천만 원), 김0우 학생이 104,000달러(한화 약 1억 4천만 원), 김0후 학생이 74,000달러(한화 약 9천6백만 원), 서0교 학생이 62,000달러(한화 약 8천3백만 원), 하0웅 학생이 93,000달러(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약속



남진석 GEM·GVCS 이사장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받고, 또 다른 한 명의 학생도 상당한 장학금을 받고 진학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GEM·GVCS는 “공부와 축구에서 동시에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영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에 합입어, 소위 학업과 선수 생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남진석 이사장은 “저희 학교는 축구부 학생들이 공부할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적은 양을 운동시키더라도 과학적 방법으로 하며, 욕하거나 기함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 저희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아니라, 나름의 창의적 방법으로 경기를 운영하다보니 강팀을 이기기도 한다”며 “그래서 NCAA, NAIA에 속한 대학에 엄청난 장학금을 받으면서 진학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 이사장은 이어 “지금 우리나라의 스포츠 역량에 비해 국제 스포츠 기관에서 역할을 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언어적 문제 때문”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계적인 스포츠협회에 들어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인재들이 될 것이라 본다. 빠르면 10년 안에, 늦더라도 15년 안에 아이들이 각종 스포츠단체와 국제스포츠단체에서 스포츠 외교관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 2024 국내대학 진학 결과는?

국내대학이 수시전형보다는 정시전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시제도가 변화하면서, 정인교육을 강화하고 국제화 교육을 강조하는 글로벌선진학교 졸업생들이 국내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예년보다 다소 불리해진 상황이다. 이에 GEM·GVCS는 국내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국제화 교육 기조를 지키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개발 중이다.

2024 국내대학 진학 현황은 대표적 기독교대학인 한동대학교와 각 교단 신학대학(한국침례신학대학교, 장로교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고신대학교 등), 기독교



글로벌선진학교 음성캠퍼스 전경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 전경



글로벌선진학교 세종창의캠퍼스 전경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남대학교, 배재대학교, 목원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으로 진학하고, 중앙대학교 등 일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했다. 또 글로벌교육과정에 힘입어 인천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진학하거나 일부 학생은 항공서비스 관련 학교에 진학했다고 GEM·GVCS는 밝혔다.

5. 전국 기독교학교에 전문 진로 진학지도서비스 지원 예정

글로벌선진학교의 설립법인인 (사)글로벌선진교육은 20년간 성공적인 진로 진학지도의 경험을 살려 진로 진학지도 전문 산하기관인 ‘글로벌교육기획단’ 운영을 시작했다. 전문적 진로 진학지도를 필요로 하는 전국 기독교 대학학교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맺어, 일반적인 진로 진학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진석 이사장은 “저희 학교의 양질의 진로 진학서비스를 이

는 뉴 그래스(New Grace) 프로그램 실시

글로벌선진학교는 국제화 교육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자연 친화적 학교로, 정부 인가 대학학교다. 그러나 국내 교육과정만으로는 영어구사력을 일정 수준 향상하게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어, 2020년부터 7학년(중1)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미국에서 영어몰입 연수 과정인 ‘그래스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프로그램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 100여 명의 한국 학생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영어몰입교육의 한계를 느껴, 2024학년도부터는 7학년 입학생들이 봄학기를 한국에서 이수하고 가을학기부터 10여 개의 미국 자매학교에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고, 잘 준비된 기독교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영어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 비용을 절감하고, 자매학교가 있는 지역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영적 돌봄을 더욱 긴밀하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음성캠퍼스, 오후 2시 문경캠퍼스에서 열리는 학교 설명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뉴 그래스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남진석 이사장은 “결정적 시기 이론에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만 13세 이전, 곧 중1 때”라며 “저희 학교에 입학하면 무조건 1년간 미국 자매학교에 보내는데, 올해부터 집단이 아닌 소수로 5-10명씩 미국 10-15개 자매학교에 분산 배치하고, 미국 집에 홈스테이 시켜 진정한 영어몰입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홈스테이 자격요건은 좋은 크리스천 가정이며 결혼 가정이 아니고, 가능하면 또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아이들에게는 주말에만 핸드폰을 주고, 식사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접할 것을 권한다. 또 지역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 중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아이들을 주적으로 찾아가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학기 학생 모집을 위한 학교 입학설명회 진행

글로벌선진학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신입생 총원율이 급감하면서 상당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기간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모금활동을 펼치고 내부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4년 봄학기 신입생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신생 학교인 글로벌선진학교 세종 창의캠퍼스는 설립 3년 만에 100명 규모의 학교로 성장했다.

1. 봄학기 신입생 총원율, 코로나 이후 정상케도 진입

글로벌선진학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신입생 총원율이 급감하면서 상당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기간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모금활동을 펼치고 내부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4년 봄학기 신입생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신생 학교인 글로벌선진학교 세종 창의캠퍼스는 설립 3년 만에 100명 규모의 학교로 성장했다.

2. 영어 청해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

이지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를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美교회 근처에서 성경 2백 권 소각 사건 발생... “기독교 공격받아”

미국 테네시주의 한 목회자가 지난 부활절 주일 신원 미상의 용의자가 교회 근처 트레일러에서 2백여권의 성경에 불을 질렀다면서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마운트 줄리엣에 위치한 글로벌 비전 성경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렉 로크 목사는 부활절 주일에 예배를 통해 “미국에서 기독교가 그 어느 때보다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복음주의 신자들이나 가톨릭 신자들에게 오늘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활절을) ‘트랜스젠더 가시화(Trans Visibility)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활절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로 선포해 보수 기독교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CP는 전했다.

로크 목사는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잠시 생각한다”며 친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현실을 깨우라. 짐승 체계(beast system)가 여기 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주장했다.

로크 목사는 부활절 주일 오전 8시쯤 누군가 교회 근처에 성경 트레일러를 내려 놓고 불을 지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것은 모두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로크 목사는 “부활절 주일이다. 오늘 아침 6시에 우리 보안 카메라에 한 남자가 교차로 중앙에 트레일러를 내려놓고 우리 교회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그는 성경이 가득한 트레

일러 전체에 불을 질렀다. 우리 교회 앞에서”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 밤새도록 차를 몰았던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차장에 있어서 빨리 경찰을 여기까지 모시고 왔다.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첫날 아침 보게 된 장면은 꽤 심각했다. 사방에서 차량진입을 막아야 했고 겨우 청소가 끝났다. 주님 안에서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윌슨 카운티 보안관실은 성경을 통해 이 사건을 확인했으며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오늘 오전 6시쯤 줄리엣 마운트 경찰국과 소방국은 울드 레바논 비포장도로와 샌들러 로드 교차로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마운트 줄리엣 소방서의 부지런한 노력으로 즉시 진압되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윌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부관과 형사들이 수사를 주도했다. 성경이 담긴 트레일러는 소방서에 이동됐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구체적인 세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했다.

로크 목사는 교인들에게 성경 소각이 증오 범죄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FBI가 출동했다고 경찰이 말했다고 밝혔다.

로크 목사는 “그는 새벽 5시 58분에 비상등을 켜다”라며 “와, 여기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예의바른 사기꾼이었다고 생각했다. 예의바른 사탄송배자를 만난 적이 없다”라며 “그는 트레일러를 풀고 거기에 휘발유와 연료를 뿌렸다. 그러면 아마도 200권의 성경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화재로 전소된 성경책들. ©Facebook/Greg Locke

캐나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아내 태미, 가톨릭으로 개종

캐나다의 유명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Jordan Peterson)의 아내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태미 피터슨(Tammy Peterson)이 목주와 기도 가 말기암에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조던 피터슨과 그의 아내 태미. ©YouTube/EWTN

태미 피터슨(Tammy Peterson)은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에 있는 성목주기도 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성야 미사에서 가톨릭 교회로 확증을 받았다.

조던 피터슨은 EW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신앙 여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이 그녀에게 매우 좋은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아내의 천주교 개종이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정말 좋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녀는 자신을 더욱 철저하게 계몽하려는 노력을 추구했고, 이번 천주교에 대한 탐구가 그 열쇠였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했다.

조던 피터슨은 자신의 신앙 여정에 대해 “사물의 경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톨릭교로 개종할 가능성은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조던 피터슨을 인터뷰한 EWTN 특파원 콤 플린은 그의 아내가 가톨릭 신자

가 된 부활절 성야식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 사진에는 부활절 성야 미사 동안 관례대로 피터슨 가족이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들고 나란히 서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른 사진은 태미 피터슨이 정식으로 가톨릭교회에 입교할 때 신부가 그에게 손을 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식적으로 가톨릭교회에 가입한 후 조던 피터슨은 아내에게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물었으며 그녀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한다.

앞서 태미 피터슨은 폴란드와의 인터뷰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된 계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2019년에 그녀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치료 불가능한 신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목주를 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

안했다.

태미 피터슨은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병원 심방을 통해 5주 동안 매일 2시간씩 함께 기도했다.

그녀는 또한 진단을 받는 동안 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했으며 병자를 위한 9월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내 림프계의 누출이 막힌 것은 그러한 기도를 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와 인턴이 태미 피터슨에게 “당신은 나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건강 개선이 신성한 개입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태미 피터슨은 개신교인으로 성장했지만 어려웠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가톨릭교회에 정착했다고 EWTN에 말했다.

그녀는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며, 사촌이 그녀에게 연락하고 고인이 된 조상의 목주를 우편으로 보낸 후 증조할머니가 가톨릭 신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태미 피터슨은 “인생은 고통스럽다. 세상이 열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불잡을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폴란드, ‘가자지구 오폭 사건’ 검찰 수사 개시

가자지구 중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국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킵친(WCK) 직원 7명이 숨겨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폴란드가 자국민 사망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폴란드 PAP통신에 따르면 파벨 브론스키 외무부 대변인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이번 사건과 관련한 통화를 했다고 전날 밝혔다.

수 분 간 이어진 통화에서 시코르스키 장관은 이미 폴란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은 형

사 사건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카츠 장관은 폴란드 정부와 국민, 사망한 폴란드인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식량 지원을 위해 나선 WCK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폴란드인 호주인, 영국인 등 팀원 7명이 사망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으로 각국이 분노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건 직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분노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이날도 도날

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X전 트위터)에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대다수 폴란드인들은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연대를 보여줬다. 오늘 여러분은 이 연대를 정말 어려운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한 비극적인 공격과 (네타냐후의) 반응은 충분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고 적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이건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날 말한 바 있다. 최현호 기자

지난 50년 간 대만서 규모 7.0 이상 강진 7번 발생

대만 동부에서 25년 만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50년 간 대만에서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7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규모 7.0 이상의 가장 최근 지진은 2006년 대만 남부 핑둥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이다. 당시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42명이 나왔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지진은 규

모 7.7로 기록된 1999년 난타우 강진이다. 이 지진으로 2264명이 숨지고, 866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외에도 1986년 화롄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 1978년 동타이퉁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 1978년 동타이퉁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이 있다.

1986년 지진에선 13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02년 지진에선 4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다쳤다. 1978년 지진 발생 당시에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집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대만에는 42개의 활성 단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성단층이란 최근 지질시대에 활동을 했고, 가까운 미래에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최현호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환경도 도시도 시민도 활짝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출발** 出发 出発
Departures

설렘을 찾아서, 인천공항 Check-in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순간들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특별했음을 알게 한 시간들
모두의 소중한 조금은 특별했던 일상으로

다시 시작, 인천국제공항



2030 '부동층' 표심이 총선 최대 변수... 공정·특혜 이슈에 주목

4·10 총선을 코 앞에 앞둔 가운데 2030세대의 표심 향배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 어느 진영을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이른바 '부동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4일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29세의 38%가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27%), 국민의힘(25%)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30대 역시 29%가 무당층으로 집계됐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무당층 비율이 12% 이하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과 탈이념적 성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봉재활원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신용 명지대 교수는 "2030은 실용적으로 접근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후보를 고른다"고 설명했다. 박용국 기자

론가는 "20대 남성이 이준석 대표 실망으로 지지 후보가 없어졌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2030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홍태 리얼미터 연구원은 "공정성에 민감한 2030은 조민 입시비리 사건으로 당에 지지세를 보이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야 모두 최근 2030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청신설, 민주당은 대학기숙사 5만호 공급 등 청년정책을 앞세웠다. 이들이 어떤 이슈에 載滿해 표심을 결집할지에 따라 총선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김준혁 후보 잇따른 '여성혐오' 발언 논란

중도층 이반 우려

4·10 총선을 6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 논란이 잇따라 일고 있다. 이에 여성뿐 아니라 중도층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의 별명인 '나베(나경원+아베 신조)'라며 "국가관이나 국가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라고 직격했다. 또 대한민국은 일본과 "대등한 선린관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상대 후보를 공격했다.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 역시 이날 초 자신의 SNS에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관련 발언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힌 점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5일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이 한 방송에서 김 후보 발언을 두고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을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면 유권자 심리가 요동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중도층이 이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발언은 상대 측이 여성혐오 프레임에 씌워 갈라치기하려 한 것"이라며 "김 후보는 사과했으니 논란 최소화해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8%... 수도권 상승·충청권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38%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충청권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4일 여론조사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38%였고 '잘못한다'는 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39%, 인천·경기 35%로 각각 5%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8%포인트 내린 40%, 대구·경북도 7%포인트 떨어진 47%를 기록했다.

연령대로는 30대(31%)와 60대(58%)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70세 이상(66%)에서는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율이 24%로 7%포인트 내렸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 40%, '잘못된 방향'이 5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 확산... 과반 달성 최선"

"금감원의 총선 전 중간 검사 발표, 관권선거 개입"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지역구 110석 획득을 전망하며 과반 의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상승세"라고 밝히고, "투표율 등 변수를 감안할 때 과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막판 여야 지지층 결집으로 50곳 이상의 경합지가 있어 한표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투표율 65% 이상이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플러스 요인"이라며 "윤 정권의 경제 실정, 무능에 대한 심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의 위기론은 "지지층 투표율 적극화를 위한 속셈일 뿐"이라며 "국민은 이번 선거를 윤 정권 심판으로 보고 있어 먹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총선 전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데 대해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금감원이 갑작스럽게 검증에 나선 느낌"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에 관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문석·김준혁 후보 논란에 대해 "일부 후보의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행위와 발언에 송구하다"면서도 "본인들이 사과와 반성을 했고, 국민이 평가하실



한병도 선거대책위 전략본부장 ©뉴스시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이 김준혁 후보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혁기 상근 부실장은 "김 후보에게 해당 학교에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총선 막판 각종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자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를 차단하고, 선거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그간 정부·여당의 실정 등을 거론한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대한 반격으로도 읽힌다. 박용국 기자

한동훈, 사전투표 독려... "여론조사 잇고 투표장 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광진구 유세 현장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할 것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따위 잊어버리시라"며 "투표장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 차이만 모든 걸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들 중에 맞는 게 있느냐, 없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휩싸이지 말고 투표일까지 신중히 마음을 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정당지지도, 지역구/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제1당 예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로 국민의힘(30%)을 크게 앞섰다.

한 위원장은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저와 김병민, 오신환 후보는 사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신성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광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병민(왼쪽) 광진구갑 후보, 오신환 광진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시스

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에게 돌아나지 않도록 내일 투표장에 나가 보여달라"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박용국 기자

국민의힘 후보들 "정권심판은 대선 때"... 표심 잡기 노력

4·10 총선을 6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권심판은 대선 때 해달라"고 호소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정권 심판론'에 맞서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4일 김선동 국민의힘 도봉을 후보는 유세에서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그 심판은 다음 대선 때 하면 된다"며 "지금

국회의원 선거여서 도봉 발전을 시킬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심판이 아닌 국회 심판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이제 막 일 시작하려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호 국민의힘 파주갑 후보도 전날 유세에서 "정권심판은 대선 때 하는 것

이라며 "이번 총선은 일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권 심판론'에 적극 반박하는 것은 정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초 정부 령치기 공격을 차단하고 표심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박용국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클리어패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한반도도 규모 5 이상 강진 발생 가능… 지속적인 대비책 필요”

최근 한국 인접국인 대만과 일본에서 강력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내 지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내진 대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월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 지진으

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초 일본 이시가와현에서는 규모 7.6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과 홍태경 연세대 교수 등은 한반도도 규모 5 이상의 강

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층 조사 등 지속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2016년 경주(5.8), 2017년 포항(5.4) 등에서 규모 5를 웃도는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과거에는 1952년 평남 강서

군 인근에서 규모 6.4의 지진도 있었다. 지난해에도 한반도에서 규모 3 이상 지진이 16차례 관측돼 연평균(10.4회)을 웃돌았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 지각 응력 변화로 강진 발생 가

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홍태경 교수는 “한반도와 유사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는 7 정도”라며 “이번 대만 지진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원전 방사능 누출 등 큰 피해

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강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숨은 단층을 적극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나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신혼부부 소득기준 현실화… 저출생 해결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신혼부부 대상 추가금융 지원 기준을 대폭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비탐복전세 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도 부부 합산기준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높였다. 정부의 기존 지원 기준이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

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육아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 분야에서도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미

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기업 투자 세제지원, 부담금 제도 정비, 주택 supply 확대, 대출 이자부담 경감,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민생 현안

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반기 중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마무리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늦어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늘봄학교 초과 달성에도 “지속가능성 떨어져”… 교사-학부모 시각차 존재 해

정부가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초등학교 돌봄 공백 해소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교사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48%(2963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며, 2학기에는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당초 목표(2000여개교)를 훌쩍 넘어선 성과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후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돌봄 대기 학생도 완전 해소했다고 교육당국은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인력과 공간 문제가 여전히 과속 운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실을 오전엔 일반 수업, 오후엔 늘봄교실로 활용하는 ‘겸용교실’이 30%에 달해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부 강사가 81%에 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과정과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최근 학교폭력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학부모들은 오히려 프로그램 확

대가 느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하는 부모가 늘면서 돌봄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체계적인 준비와 전용 공간,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교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늘봄지원실 등 별도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1학기엔 미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참여를 통한 ‘온돌네 초등돌봄’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요조사 등 업무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담하고,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나래 기자

외식물가 4개월째 둔화세지만… 농축산물·먹거리값 오름세 여전

외식물가가 지난 3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월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둔화세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11월 4.8%를 정점으로 12월 4.4%, 1월 4.3%, 2월 3.8%로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외식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웃돌면서 국민 먹거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식 품목 39개 중 23개가 3.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빔밥(5.7%), 떡볶이(5.3%), 김밥(5.3%), 냉면(5.2%), 구내식당식사비(5.1%), 햄버거(5.0%) 등의 상승폭이 컸다. 전달보다 오름세가 확대된 품목도 김치찌개 백반, 갈국수, 생선초밥, 짬뽕, 탕수육, 구내식당식사비 등 6개에 달했다. 반면 가공식품은 1.4% 오른 데 그쳐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라면(-3.9%)과 소주(-1.4%) 등 서민 기호식품은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설탕(19.7%), 소금(18.4%), 기타

육류가공품(7.5%), 초콜릿(7.5%) 등 생활 필수품은 높은 오름세를 면치 못했다. 아이스크림(6.9%), 과일가공품(6.7%), 우유(6.2%) 등도 6%대 상승률을 보였다. 3월 농축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1.7% 급등해 2년 1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가 정점에 대해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국민 체감물가가 높은 만큼 조속한 2%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겠다는 방침이다. 이나래 기자

작년 가계 ‘여윳돈’ 51조 줄어… 금리·경기 부진에 자금 운용 ‘꽂꽂’

지난해 가계의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년 대비 50조 8000억원 감소한 158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자금순환’ 잠정치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은 194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 8000억원 가량 줄어 들었다. 반면 자금조달은 36조 4000억원에 그쳐 전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가계의 여유자금 감소로 예금과 채권, 주식 등 자산 운용 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예금은 18조 2000억원, 채권은 9조원 각각 감소했고, 주식 투자는 31조 7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의 감소 전환을 기록했다. 한편 자금조달이 축소된 것은 주택자금 대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 정진우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 증가세 둔화에 따른 여유자금 감소와 금리 상승, 경기 부진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순조달 규모 또한 198조 1000

억원에서 109조 6000억원으로 88조 5000억원 감소했다. 조달 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이 446조원에서 140조 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자금운용 또한 해외투자 축소와 매출 부진 등으로 247조 9000억원에서 30조 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 팀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 해외 직접투자 축소, 매출 부진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4%로 전년 104.5%에 비해 4.1%포인트 하락했다. 이나래 기자

정부, AI 일상화 위해 7102억 원 투입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올해 국민의 일상 속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을 위해 총 7102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민·산업·공공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가 산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협의회에서 AI 정책의 방향을 조율한다.

정부는 AI 기술을 경제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AI 일상화 프로젝트에 7102억원을 투입, 69개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 일상 분야에는 755억원을 들여 AI 기반 건강·장애인 돌봄 등 18개 과제를 진행한다. 보육·교육·문화·주거 등에도 AI 도입을 확산한다. 산업 현장에는 2881억원을 투입, 제조·농업 등 24개 과제에서 AI 기반 생산 혁신을 지원한다. 법률·미디어 등 민간 전문

영역으로도 AI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공공행정 분야에는 1157억원을 들여 재난대비, 업무보조 등 14개 과제에서 AI 활용을 촉진, 과학적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 AI 윤리 안전 기반 구축 등에 230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로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대한민국이 AI 공존 1등 국가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안정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한방인약품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청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해방정국기 한경직의 건국신학 연구: '전도입국론'을 중심으로(1)

김일석 박사
임마누엘교회 담임
장신대



I. 서론

한경직은 해방정국에서 새로이 건설될 나라를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전도를 통한 건국론을 전개했다. 이른바 전도입국론(傳道立國論)이 그것이다. 교회는 당회(堂會)라는 기구가 상존하듯 대의민주제로 운영되는데, 따라서 교회가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나라 역시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해방정국 당시에 새로이 세워질 나라의 정체(政體)가 될만한 후보군으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비롯하여 기독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역시 공존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한경직은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야말로 최선이라고 여긴 반면 공산주의를 국가와 교회의 적으로 지목한다.

그렇다면 한경직은 왜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만이 최선이라고 확신한 것일까? 건국이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서 특정한 정체에 대한 선택과 배제에 한경직의 어떠한 지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이 그 기저에서 작동하고 있었을까? 곧 기독교적 민주주의를 지지한 한경직의 국가관과 그 방법론으로 제시한 전도입국론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공산주의를 배제한 성경적이고 실존적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에 따른 전도입국론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현대사에서 한국교회와 국가의 관계성이 정초되는 지점을 발견함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모색하고자 한다. 해방 이전에 일본 군국주의의 압제 아래 통제당하던 교회는 해방 이후에는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자주적인 교회로 거듭나고자 했다. 이로서 해방을 전후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 자리매김한 한경직의 국가관을 고찰한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국가관의 시원(始原)을 밝히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한경직의 기독교적 민주주의의 선택과 공산주의의 배제는 서북청년단을 추종할만큼 강력한 신학적 담론으로 가능했다. 이는 장차 장로교회라는 교단 차원의 신학을 넘어 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국가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 논란에서 보이듯 한국교회의 국가관은 도전받고 있으며 성찰과 재검토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한경직 연구를 통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시원성의 고찰은 따라서 한국교회가 기존에 유지해오던 반공주의에 기초한 국가관을 재설정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역사적 맥락과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전도입국론의 역사적 배경

조선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방을 꿈꾸어왔지만 그 해방은 예기치 않게 도착일이 찾아왔다. 일본과 미국이 벌인 태평양전쟁의 결과에 따라 일본은 패전국이 되고 미국은 승전국이 되었다. 이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해방을 맞이함과 동시에 미국의 통치 아래 예속되었으며 따라서 독립국이 아닌 속국의 지위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의 백성들은 해방 자체에 감격하며 환호했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어 전국 각지에서 건국운동을 태동시키기 시작했다.

A. 뜻 밖에 찾아온 해방

해방은 우리의 손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었기에 태평양전쟁이 끝남에 따라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이, 38도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해방군이자 점령군으로 주둔하게 된다. 하지만 해방 직후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상(外相)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민족지도자들은 찬반을 두고 우익과 좌익으로 분열되어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건국의 주도권을 놓고 술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1946년 10월의 대구항쟁, 장덕수-여운형김구 등 민족지도자들의 연이은 피살, 1948년 제2 4.3항쟁과 뒤 이어 발생한 여수-순천사건에 이르기까지 해방정국은 그야말로 바람 잘날 없던 절풍노도의 시기가 되었다.

B. 미군정의 성격

38도선 이남에 주둔한 미 8군은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1948년 8월까지 3년간 군정(軍政)을 실시하였다. 군정을 앞세운 미국은 중공과 소련 등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남한을 민주주의의 보루로 만들고자 했고, 특히 기독교의 진흥을 통하여 이 목표를 이루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한국말에 능통한 것은 물론 남한의 사정을 잘 아는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와 같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행정적 실무를 대신하게 하고 교회를 적극 후원하게 된다. 이틀테면 일본의 적산(敵産)인 서울 내 천리교 소유의 부동산을 조선신학교 측에 불하함으로써 영락교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C. 민족지도자들의 기독교적 건국론

해방정국의 대표적인 민족지도자들이 우익 3영수로 불리던 김구, 이승만, 김구식 세 사람은 1945년 11월에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임정요인 환영대회에 참가해 해방을 맞아 조국에 돌아온 감격을 토로함과 더불어 앞으로 만들어갈 나라에 대해 나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들 세 사람은 한 목소리로 기독교적 건국론을 펼쳤다. 우익 3영수의 기독교적 건국론은 해방정국 당시 기독교가 갖는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기독교가 더 이상 외래 종교나 소수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건국의 동력이 되어 장차 한국을 책임질 정신적

주춧돌이자 시민 종교로서 가능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익 3영수가 행한 이 연설을 통해 교회 청년들은 물론 교계 지도자들 역시 한껏 고무되어 예배와 설교, 집회와 출판 등을 통해 건국운동에 동참함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했다. 남한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대체로 해방된 조국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으나 김창준이나 최문식과 같이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 역시 공존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해방정국 당시 기독교계 건국론의 진폭(spectrum)은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 있다.

III. 전도입국론의 형성

한경직은 1902년 평안남도 평원 간리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서구식 근대 교육을 받은 1세대에 속한다. 더욱이 기독교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성리학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적성장환경이 조성되었다.

A. 민족적 배경: 오산학교와 숭실대학

한경직은 모교화된 자작교회가 운영하는 진광소학교를 졸업한 뒤 투철한 민족교육을 시키는 학교로 소문난 평북 정주에 위치한 오산학교에 진학하여 3년간 중등과정을 수학하며 서북 지역의 기독교 민족주의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특히 학교 설립자인 남강 이승훈과 교장인 고당 조만식을 만나게 된 이후로 한경직은 두 스승을 일생생 추앙하게 된다. 남강과 고당 두 사람은 모두 서북 지역 의 실력양성론을 대표하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로서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교육입국(教育立國)을 꿈꾸던 지도자들이었다.

오산학교에서 한경직이 체득한 실력양성론은 청말 개화사상가인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의 책인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을 매일 읽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되었다. 한편 실력양성론은 개인적 역량 강화에 치중하여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적 모순에 대처하기에 취약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량치차오의 신민론(新民論) 역시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것으로, 결국 민족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사상이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조화되기에 곤란한 사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후 숭실대학에 진학한 한경직은 민족보다 교회를 앞세우는 교육을 받는다. 민족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은 오산학교와 달리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숭실대학의 학풍은 교회지도자 양성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한경직은 학업에 임하는 와중에도 교내 YMCA 회장을 역임하고 방학 동안 전도대를 결성하여 지방 순회 회중전도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등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다. 민족을 섬기기 위해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화학을 전공하던 한경직은 재학 중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된다. 이에 한경직은 신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스승인 블래어(William N. Blair, 방위량)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된다. 목회자가 되더라도 한경직은 나라와 민족을 위

해 일 한다는 정신만큼은 일관되게 간직해 채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B. 신학적 배경: 프린스턴 신학교와 폐결핵 투병

1925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경직은 캔사스 주에 위치한 장로교 계열의 인문대학인 엠포리아 대학(College of Emporia)에 진학하여 철학과 역사 등을 배우며 신학에 입문하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을 충실히 쌓게 된다. 1년간의 학부 과정을 통해 영어를 심화시키고 친절하고 따뜻한 미국의 기독교 문화에 적응해가며 한경직은 점차 미국 사회에 연착륙하게 된다. 엠포리아 대학 졸업 이후 한경직은 미국 장로교 신학의 본산인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 진학하여 목회자가 되기 위한 신학적, 목회적인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진행하던 수업을 보면 때 학기마다 성서학과 설교학을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설교자와 선교사 양성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경직이 재학하던 1920년대 후반에는 미국 장로교회가 분열되기 직전의 시기로 유럽발 자유주의 신학, 특히 성서고등비평의 수용과 대응 방식 및 교회의 정체성 문제를 놓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자주 일어나곤 했다.

한경직은 구 프린스턴 신학(old school)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였으며,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교회의 분열조차 불사하는 그레셴 메이첸(Gresham Machen) 교수보다는 교회의 화합을 중시한 찰스 어드만(Charles Erdman) 교수 편에 정서적으로 가까웠다. 하지만 논쟁을 주도하던 양측의 신학자 모두 구 프린스턴 신학을 견지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했던 바, 곧 신앙고백적 공동체로서 '보이는 교회'에 치중하는 가시적 교회론을 고수한다는 입장에서 이들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

한경직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며 교회사를 더욱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했다. 하지만 폐결핵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학업을 중단한 채 뉴욕시교주의 고산지대로 가서 양양을 하게 된다.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 역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한경직은 고국에 돌아가 공부한 기간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가면서 한경직은 성 프란체스코와 톨스토이의 책들을 읽게 되었다. 특히 프란체스코에 깊은 감명을 받아 평생 청빈하게 살아가며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역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구제와 봉사를 지향하는 한경직의 목회 방향은 이 시기에 구체화되어 향후 보린원을 설립, 운영하기에 이른다. 프란체스코는 타락한 중세 교회를 개혁할 힘을 구제와 봉사로 제시한 인물이었고 톨스토이는 예전과 성서에 경도된 러시아정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세지에 더욱 집중하라고 역설하던 인물로서, 이 둘을 만남으로 인해 한경직의 장로교 신학은 그 외연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C. 목회적 배경: 신의주제2교회, 월남과 영락교회

건강을 회복하고 1932년에 귀국한 한경직은 스승인 조만식이 이사장으로 있던 평양 숭인상업학교에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33년, 신의주제2교회의 청빙에 응해 신의주로 올라가 목회에 전념하게 된다. 교회를 새로이 건축하고 부흥기를 맞으며 목회에 전념하던 중 고등비평을 수용한 주석서인 『아빙돈 성경주석(Abingdon Bible Commentary)』의 번역자로 일했다는 이유로 장로교 총회와 한 차례 불화를 겪으며 한경직은 교권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운 몸가짐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일제가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문제에 관하여 한경직은 훗날 당시를 회상하며 '건강이 약화되어 감옥에 들어가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밝히며 당시의 압제적인 분위기에 상신사참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다. 이로서 감압적인 정권 앞에서 굴신하게 되는 한경직의 대응방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후 일제에 의해 신의주제2교회 담임목사직에서 강제 사임을 당한 뒤 교회에서 설립한 보육시설인 보린원에 들어가 원생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 직후 한경직은 평안북도 자치위원회에서 일하던 중 소련군이 주둔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공산당에 대적할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창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내 공산당의 위협을 피하고자 9월 말에 월남하게 된다. 한경직의 월남한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통해 벌인 활동 내용과 기간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경직은 해방정국에서 건국운동을 활발하게 벌인 기독교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 사회민주당의 창당은 윤하영이 주도했고 당 강령은 이유필이 작성한 것에 비해 한경직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이나 그 활동기간 역시 지나치게 짧은 점으로 보아 한경직을 기독교 건국운동가로 보는 관점은 다소 과장된 해석으로 보인다. 또한 기독교 사회민주당 강령 가운데 토지 및 주요 산업시설 국유화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에게서 기원하고 성경에 터한 기독교적 정책이라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월남 직후 미군정에서 잠시 통번역일을 하던 한경직은 친구 김재준과 함께 서울 시내에 산재되어 있던 적산(敵産) 중 하나인 천리교의 재산을 불하받아 기존의 조선신학교를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경직은 교수의 자리보다 목회의 자리를 우선하던 인물이었다. 결국 한경직은 조선신학교 여자기숙사가 있던 자리인 영락정에서 월남한 이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영락교회를 일구게 되었다. 한경직의 첫 설교집인 「건국과 기독교는 바로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한 채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를 위문하고 동시에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 수립의 당위성을 주장한 설교만을 따로 모아 편집한 것이었다. 이처럼 영락교회 창립 이후로 한경직은 철저하게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 시키게 된다. <계속>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기업구조조정지원펀드(기업)
- 경로 신비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년 ‘녹색연회’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3)

박운순 목사
원천교회 담임



* 지난 호에서 다룬 내용과 금 번 호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들어가는 말
- 1. 주제해설
- II. 무엇이 문제인가.
- 1. 주제해설에 나타난 범신론
- 2. 설교문에 나타난 문제들, 범신론 및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등으로 여김.

1) 하나님이 살기 좋은 세상을 왜 심판 하셨을까?
2)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어쩌랴?

3. 주제 성구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성경적 의미

4.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의미
1) 말씀을 버린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5. 실천방안으로서의 회개와 성경적 회개
6. 회무시 권장사항 (Reuse) => 녹색연회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녹색교회로의 초대 문제 2) 연회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함의 문제.

III. 맺는말
* 금번 호에서는 4.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의미부터 논하고자 한다.

4.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의미
1) 말씀을 버린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가르치며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선이다. 거역하는 것이 죄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대 하니”(삼상 15:22-23)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녹색연회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사상과 소견을 따라 난도질하고 버린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어쩌면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 작금의 사태와 같이 젊은 목회자가 출교를 당한 것은 아닌지, 그를 가르쳤던 자들은 더욱 돌아보아야 한다. 각 지방회를 통해, 연회를 통

해, 총회를 통해 목회를 돌아보고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제대로 바르게 성경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성경을 왜곡한 자가 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개념도 없고 지식도 없으며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본래 감리교회는 어떠했는가? 성경을 기초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웨슬리를 통하여 세우신 우리의 감리교회의 연회나 총회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모임이 아니라 교리를 가르치고 점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감리교회 교역자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의 감리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 그 같이 기후와 환경을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언설교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길 것을 약속하셨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고”(요16:9-10)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목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성경을 난도질하고 훼손하여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한다. 이는 특정한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녹색연회의 설교문을 작성한 양재성 목사는 예수님을 향해 “창조의 일부이신 예수”라고 하며 “자연은 하나님의 집, 자연은 하나님의 연인이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연은 성서 이전의 성서라고도 한다. 기가 막혀 표현할 길이 없다.”

특히 녹색연회를 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녹색교회 회원교회의 담임자들을 보면 금번 이동환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다수의 목회자들은 물론 출교가 부당하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목회자도 있다. 이동환은 귀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행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가고 신학교의 테드 제닝스를 초청하여 결국에는 “귀어성서 주석”까지 발간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기초석을 놓은 자다. 그러한 자를 위해 변론을 하고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의 출교가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이 도모하고 있는 녹색연회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 일까?



감리회 선교교 발간 ‘녹색연회’ 가이드북 표지.

목사라면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분으로 모든 피조 된 인간과는 본질이 다르다.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한 본질과 본체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5-17)

이 얼마나 명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가! 하나님은 영이신 까닭에 보이지 않으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 주셨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성난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시므로 창조의 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내셨다.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모든 인생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능력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심을 드러내셨다.

한 아이의 양식으로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유에서 더 있게 하시는 성부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성자에게도 있음을 드러내셨다. 모든 기사와 이적의 목적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체와 본질이시며 권세와 영광도 동일한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역시 보이지 않으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 속에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나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다윈주의, 해방신학이나, 생태신학 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다.

5. 실천방안으로서의 회개와 성경적 회개
녹색연회의 실천방안으로서 첫째, 소비 위주의



과거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2024 환경(녹색)연회 개최를 위한 연석회의 모습. ©기독교일보DB

삶을 회개하고 둘째, 편리 위주의 삶을 회개하며 셋째, 창조세계의 부흥을 위해 힘쓰자고 한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열납 될 기도제목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그렇다면 성경적 회개란 무엇일까? 관계성 속에서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경에 기반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눅15:11-24)에서 아들의 죄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던가? 자연을 보존하고 탄소 중립을 이야기 하지만 가장 먼저 목회자들이 해야 할 것은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고치도록 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전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아오도록 연회는 그러한 일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6. 회무시 권장사항 (Reuse) => 녹색연회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녹색교회로의 초대 문제
회무시 권장사항 가운데 “탄소중립 선언문 낭독 및 탄소중립(3R-줄이고, 재사용하여, 창조세계의 부흥을 이끈다)실천, 녹색교회로의 초대 결의”하는 순서가 있다. 앞서 녹색연회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목회자들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많은 문제들을 일부 언급하였기에 ‘창조세계의 부흥을 이끈다’ 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녹색교회로의 초대 결의를 하겠다고 하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연합하고 성경적 거룩함을 도모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성경과 전통적인 감리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일들로 감리교회가 몸살을 앓아 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 녹색교회로의 초대를 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

않을 수 없다.

지난 5년간 출교를 당한 자의 재판으로 인해 감리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악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결집력을 필자는 목도하였다. 정작 재판에 걸려있는 당사자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것이라 추측해보건대 적지 않은 재판비용을 순식간에 모금하는 일들을 보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가 있는 해다. 그러므로 더욱 녹색연회와 같은 연회를 기획한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생태니 환경이니 하는 이슈를 통해 힘을 과시하기 위한 세력을 확장해 가려는 의도는 아닌지, 특히 녹색교회 회원교회는 헌금을 주겠다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2) 연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함의 문제

위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다. 현재까지도 연회 안에 불필요한 기구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기구나, 불필요한 기구들이 있어 오히려 재정검을 하고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또 다른 위원회를 결의하겠다니 이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반드시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년 ‘녹색연회’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III. 맺는말
부디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목회자들이 본질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교역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독특성과 무죄성을 소중히 여기며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며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잘 믿어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이지만 때때도 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황송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 무사히 이르기까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

* 외부 기고 및 칼럼 등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 2022 - 1618 - 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뻥뻥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박진호 목사
멤피스커비우즈한교회



“여호와 하나님이어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되셨나이대.”(삼하 7:22-24)

다윗은 사랑 대적을 다 파하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계획을 부류하라고 명했다. 대신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는 약속을 주셨다.

본문은 그 언약에 대해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 찬양한 내용 중의 일부인데 믿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 있다. 간단히 줄이면 본문 말미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다.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을 삼았고 여호와와 저희 하나님이라 되

다.” 하나님이라는 왕(주권자)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이 신자다. 우리 모두 익히 잘 알고 있고 실제로 믿는바 그대로다. 그런데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자신의 인생에 반영하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정확히 알고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은 광대하다”고 한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분이다. 세상을 다 포용하고도 남는 분이다. 그분은 세상을 초월하여 오직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만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 뜻이 반영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주 전체에 단 하나도 없다. ‘광대하다’는 말도 인간 이성의 한계 안에 갇힌 사실은 부족한 묘사다. 인간이 측정, 계산, 추산, 심지어 상상하는 모든 광대함을 다 합쳐도 그분의 광대함에 비하면 해변의 모래알에 불과하다. 믿음의 여정이란 그래서 그분의 광대함을 가능한 많이, 아니 단 하나라도 더 알아나가는 싸움일 뿐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참 신이 없다”는 고백이 이어진다. 그분의 역사가 크고 전지전능하다는 뜻으로 단순히 이해하면 너무 부족하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 세력, 나라, 기술, 물질, 심지어 인간들이 고안한 사상 철학 윤리 도덕 종교도 인간의 삶을 실제로 전혀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분의 뜻에 맞았기에 그분이 허락해주신 것뿐이다. 그것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거의 모든 인간사에 나중에는 반드시 그분만의 기막힌 반전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분의 일정과 방식과 뜻대로만 세상사는 기이 놀라게 마려운다는 것이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다음이다. ‘어

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다른 나라는 전혀 맺지도 못했고 아예 알지도 못한다는 고백이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의 특별히 더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분만의 유일하고 고유한 개별적인 사랑을 누린 유일한 민족이라는 뜻이다.

지금 그 고백에서 이스라엘 대신에 신자 개인의 이름을 자신 있게 넣을 수 있어야만 참 믿음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불신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으니 아예 이런 고백은 꿈도 꾸지 못한다. 아니 할 의사도 전혀 없고 구태여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찾거나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으라고 하면 도리어 역정을 내는데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땅이 전부라고 믿기에 이 땅에서 그냥 짐승처럼 먹고 사는 기본적 여건만 그분에게서 보장받을 뿐이다.

이 고백이 다른 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전혀 은혜를 못 받았다는 무시가 되거나, 내가 믿음이 더 좋아서 양질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았다는 자랑이 되어선 결코 안 된다. 다른 신자들이 알 수 없는 그분과 나만의 고유한 일대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그 바탕에서 주님의 세밀하며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기동하며 매일 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런 맥락에서 다른 신자들,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 구체적인 측면에서 다른 신자들만 다를 뿐 광대한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윗의 이 고백은 모든 신자에게 공

로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신자가 각자만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나만이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지금껏 쌓아왔고 또 그 바탕에서 앞으로의 인생도 완전히 기꺼이 그분께 맡길 수 있다고 기꺼이 고백하고 실천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그분께 불려나오는 나만의 출애굽의 역사가, 현실에서 끌리앗과 싸움에서의 그분이 주시는 나만의 승리가, 그분에게서 시내 산의 율법으로 내가 직접 받는 일이, 사무엘 같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나만의 순종이, 모세 같은 그분과 대면해서 행하는 나만의 대화들이 있어야 한다.

다윗은 또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시 자기 백성을 삼아”라고 고백한다. 각 신자마다 고유한 모든 개인적 여정들이 내 쪽에서의 능력 신분 자격은 물론 소망과 열정과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라는 것이다. 전적으로 그분의 선도적 소망과 주도적 간섭으로 시작되어 지금껏 열매 맺어졌다는 확신과 그에 따른 당연한 순복이 이어져야 한다. 지금껏 풍성하고도 완벽한 보호와 인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마땅히 장래의 모든 일도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완전히 내어맡길 수 있어야 한다.

다윗이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나”라고 하지 않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분의 당시 백성을 향한 사랑에 영원토록 단 한 치의 변개 수정 취소 포기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그분의 백성 되는 우리다. 정말로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특별히 그리고 반드시 나 개인의 영원한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상투적 표현이지만 힘을 때나 편안할 때나, 기쁨 때나 슬플 때

나 그분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다. 간략하게 다윗의 고백을 풀어봤지만 이 설명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더 풍성하고 오묘하고도 친밀하게 쌓아나가는 믿음의 승리를 신자 각자가 지녀야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자식만 부모를 오히려 불순종하고 싫어할 뿐이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본인도 부모가 되고난 이후로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며 헌신적 이었는지 깨닫고 새삼, 사실은 생전 처음으로 부모를 순전히 사랑하며 가까운 순종을 하게 된다.

바뀌 말해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그 믿음은 아주 성숙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식이 부모가 되어서 부모 심정을 이해하거나 참 사랑으로 바뀌었지 않는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최소한 부모님의 심정에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그분을 제대로 헤아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자라고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있어야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것도 신자가 하나님께 보일 사랑으로는 정말로 너무나 부족하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솔직히 부모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전혀 주저하지 않고 즉각 기꺼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면 실은 그분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자격이 없지 않는가 말이다.

성서한국의 꿈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아! 대한민국〉이란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한 목소리로 부를 노래는 〈아! 대한민국〉을 본떠서 〈아! 성서한국〉이란 노래입니다. 성서한국의 꿈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여야 할 사명이요, 소망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면 신라와 고려시대는 불도(佛道)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헌신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초 5백년은 유학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사림 마을까지 서당이 세워져 공자와 맹자의 글을 가르치고 배우던 시대였습

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바로 성서한국 시대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통일한국 시대 7천만 동포의 영혼을 이끄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요,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서한국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사야서 11장에 성서한국 시대의 한 모습이 나옵니다.

〈... 물이 바다를 덮을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11장 9절)

성서한국 시대는 물이 바다를 덮을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한반도를 덮는 시대입니다. 남으로는 한라산 꼭대기에서부터 북으로는 백두산 골짜기에 이르러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곧 성서의 지식이 차고 넘치게 하는 시대가 통일한국의 시대입니다.

영국의 전성기는 19세기였습니다. 16세기 초반까지는 자체 식량도 모자라 고생하던 유럽의 후진국 영국이 16세기 중반부터 힘을 쌓기 시작하

여 19세기에 이르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란 말을 들을 만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영국을 통치하던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한번은 영국을 방문한 한 왕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체 식량 조달도 안 되던 후진국 영국이 오늘에 와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비결이 무엇인가요?〉

빅토리아 여왕이 다음 같이 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글쎄요.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게 되면서 오늘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성서한국을 이루어 성서의 진리 위에 국력을 기르고, 그 국력을 바탕으로 삼아 선교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 한국 크리스천들 모두의 사명이 되고 한국교회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우리 모두의 화두(話頭)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

성종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교회



우리는 고난주간을 달려왔고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부활절도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 믿음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고 오늘 그 믿음 위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증인 된 삶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많은 경험과 더 깊은 은혜와 더 폭넓은 지식으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인생과 그의 구속사적 사역을 우리 믿음이 되도록 적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되면 감동에 그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알면 영화 부활의 주인공 호민관 클라비우스 고백처럼, “이제 난 예전

과 같을 수 없다는 거야” 일 것입니다. 출세만을 위해 꿈꿨던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후로 나의 삶이 예전과 어떻게 다른지 질문해 봅니다. 아니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는지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점점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교육적 인생관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가장 약하고 비현실적이고 문명사회에 반대되는 그룹으로 낙인찍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일 5:4).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길과 생명과 진리를 가졌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줄 수만 있는 보물

신성옥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에 돌도 없는 마음을 주고 싶어하신 바보가 한 분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다. 세상 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한꺼번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마음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줄 수 있는 보물이다.”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Gustave Flaubert)가 남긴 명문장이다. 영어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The heart is a treasure that cannot be sold or bought, but it can be given.”

내키지 않는 마음은 억만금을 받고 팔라 한다고 팔 수 없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사고 싶어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짜사랑 당해봤거나 짜사랑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사람의 마음은 강압이나 돈으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그저 주는 방법밖에 없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그냥 주고 싶거나,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사랑하기만 하면 아까울 것이 없다.

아무리 값비싼 보물이라도 주고 싶어 안달나게 되어 있다. 사랑해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깊고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준 채, 다른 것이나 다른 이에게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 사랑이 쌍방 통행이라야 행복이지, 짜사랑이면 다른 한쪽은 상처 입고 괴로워한다. 그동안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짜사랑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내 모습에 회개가 절로 터져 나온다.

거지 처녀가 왕자를 짜사랑해도 괴로운 일거늘, 지체높은 왕자가 거지 처녀를 짜사랑한다면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을 일인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럴 때가 많아 보인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해서 마음 주고 피까지 전부 쏟아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깊고 감사하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음이 편 데가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다.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많다. 공짜로, 무료로 받다 보니 가치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 너무나 자주 받다 보니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존귀하신 아들이시며, 창조주 중에 한 분이기도 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토록 소중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보다 귀중한 목숨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버리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때문에 공짜로, 무료로 받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싸구려(cheap)가 아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priceless)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물이다.

그 사랑의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우리는 공짜로 받은 은혜가 싸구려 취급받지 않도록 스스로 ‘양질의 삶과 열매’로 보답해 드려야 한다.

플로베르가 남긴 소중한 한 마디, “마음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줄 수 있는 보물이다.”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가 남긴 명문장 하나가 신앙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찾게 해주었다.

‘앓과 깨달음’으로 그치지 말고, ‘삶과 열매’로 우리가 받은 사랑의 복음이 결코 싸구려가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주길 소망한다.

첫 졸업생의 교회 개척



서병채 목사

케냐 멜빈대학교 총장

멜빈대학교에 3년간 다녀서 졸업한 학생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알려졌다. 개교한지 3년이 지나니 (2021년 개교) 이제 졸업생들의 방향과 진로문제가 대두된다. 사실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앞에는 주로 세 가지 가능한 선택들이 있었다. 한국이나 여기 아프리카나 유사한 현상이다. 대학원

진학, 교회 개척, 파라체치 사역. 셋 다 쉬운 것은 아니다. 나야 이제 나이도 들어서 이런 것을 시작할 일은 없겠지만 첫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제 피부로 와 닿는 문제이다.

우선 대학원 진학을 얘기해보자. 이것은 교수가 되기 위한 최종 목표인 것 같다. 그런데 등록금이 비싸니 석사과정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로 학생들의 진로는 교회 개척이다.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다.

세 번째는 파라체치 사역이 한 옵션이라고도 보겠다. 그래서 내 경우는 학생들에게 이런 파라체치 사역을 강조한다. 파라체치는 순수한 ‘비전’만으로 시작한다. 물론 훈련원, 훈련센터 같은 것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파라체치 사역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배울 기회도 없었으니 전문성이 약하다. 그래서 나는 파라체치의 의미와 철학, 전략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곤 한다.

그 외에도 신학교 설립, 선교사로 가는 등등의 진로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소위 인간난 신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든 것이니, 아프리카라는 현 상황에 맞게끔, 일단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려 보여진다. 이러한 신학교들은 세우기도 쉽고 또 돈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니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 감사한 일이다. 물론 안수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순수 신학교공부로 수료증(Certificate), 자격증(Diploma)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기도 한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社說

‘동성애 이슈’로 침몰하는 서구교회

전 세계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기독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서구교회의 심각한 상황은 한국교회에도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미국 내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미국연합감리교회(UMC)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끝에 분열했다. 영국 성공회는 최근 총회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기도를 허용하기로 의결했으나 40%나 반대해 향후 내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UMC가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허용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은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가류가 교단에 만연하면서 지난 4년간 7600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글로벌감리교회(GMC)를 조직하는 등 교단 분열의 직격탄을 맞았다.

UMC의 동성애 갈등은 지난 1972년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놓고 복음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충돌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후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단 내에서도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난관 속에서 열린 2018년 총회에선 가까스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이 채택됐다. 하지만 교단 내에 밀려든 친 동성애 물결로 보수진보 진영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복음주의 계열 교회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다.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재산권을 포기해야 함에도 동성애를 용인할 수 없어 교단을 떠나는 건 순수한 신앙적 용단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영국 교회의 사정도 이에 못지않다. 영국 국교인 성공회는 지난 2월 9일 개최된 시노드(총회)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기도를 허용했다. 동성 커플이 결혼식 뒤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주교, 성직자, 평신도 대표 441명 중 56%인 250명이 찬성해 통과됐으나 반대 181명(41.0%)이나 나오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의결 과정에서 18차례나 투표가 이어질 정도로 극렬하게 대립했다.

현재 영국 성공회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동성혼을 올린 동성 커플에게 사제가 축복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슬 배반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성공회의 이런 기류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제들에게 동성 커플 축복식을 허용한 로마 가톨릭 교황청과 판박이란 점에서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영국 성공회가 이처럼 동성애 이슈에 묻히게 된 배경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

을 꼽으려면 지난 2010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평등법을 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동성애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영국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교회마저 성경의 불문율을 깨는 변화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기독교의 쇠퇴를 몰고 왔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영국 인구센서스 결과 영국의 크리스천 비율은 46.2%로 떨어졌다. 한 때 70~80%에 달했던 크리스천 비율이 절반 아래로 내려가면서 유럽 내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불리던 영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국교인 성공회가 동성애에 받아들인 것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영국 성공회의 공통점은 교회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엄연히 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동성애자를 안수하거나 축복을 허용하는 건 논리적으로나 정서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동성애자를 인권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죄와 죄인에 대한 모호한 구분이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막고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논리의 허점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한다는 데 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한 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지칭한 것이지 사람이 아닌 개념의 절대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 중에 동성애를 하는 건 오직 인간뿐이란 점에서 죄를 지은 사람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죄인을 축복하고 허용한다는 건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동성애는 개신교회 내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의 교회에 집요하게 파고들어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다. 1916년에 호주 시드니에 처음으로 남성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가 생겨난 후 1977년에 영국 성공회가, 2007년에 미국 장로교(PCUSA)가 동성애자 성직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파고가 한국장로교와 감리교 교단에까지 밀려드는 상황에 직면했다.

교회는 사대의 양상이고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이런 전제에서 미국과 영국 교회의 사례는 동성애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건강한 사회를 얼마나 쉽게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 한국교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마음 놓아도 될 때문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편승한 인권에 눈감아주고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순간 저들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한입에 집어삼키려 들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3800만원→4400만원 상향

기존 소득요건, 신혼부부 결혼페널티로 작용해...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의 두 배 수준으로 개선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다은 기자

독거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밤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올해부터 태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

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우리 기자

전국 64개 청년카페 통해 상담, 고용서비스 지원한다

고용부, 44개 자치단체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정부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심리상담과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올해 16개 광역단체, 28개 기초단체 등 총 44개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청년의 일을 통한 성장을 응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통해 심리상담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카페는 올해 전국 총 64개소가 운영 예정이며 고용서비스 외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과 청년정책 연계 등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4일 1차로 33개 자치단체(12개 광역, 21개 기초)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2차 공모를 통해 11개 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여기에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서울 은평구, 인천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전북 정읍시, 전북 군산시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청년카페 '취트키'를 통해 자기 긍정성을 향상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마음돌봄힐링' 프로그램과 직업적성 검사, 모의 면접 등 진로설계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세종시는 청년카페 '잡견 스킨'에서 1대 1 경력설계 상담 서비스(청년참견), 네트워크 형성지원(지역참견), 이력서 쓰기와 면접 프로파일 활용 등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참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취업 이후에도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입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멘토양성 프로젝트 등 기업교육 컨설팅을 실시한다. 신입직원에게는 윤보딩 집중교육과 신입사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대표(CEO)·중간관리자와 신입직원이 함께 하는 대화형 워크숍을 준비 중이다. 임원의 비전과 신입사원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공유하면서 조직문화 개선과 직장적응 지원을 함께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카페 현장 접수 또는 운영기관 전자우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다짐돌 삼아 지역공동체 속에서 일을 통해 기반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자치단체와 합심해 청년의 합한 내일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졸음운전 주의보... 하루 평균 5.9건 사고 발생

100건당 약 2.9명 사망...음주사고 2배

졸음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포근한 봄날씨에 날씨가 차가워지는 등 이른바 졸음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 당부했다.

4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다. 요일 중에는 토요일이 하루 평균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 사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대 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

(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했다.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과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야간 5158건·주간 5607건), 사망자 수는 주간(201명)이 야간(115명)보다 약 1.75배 많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행태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으나,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

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기온이 상승하고, 주요 관광지 빛꽃이 만개해 외부활동과 고속도로 이



용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졸음운전을 비롯한 행락철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우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최신간 NEW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 2023년 10월 15일 발간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교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맞이하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평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산문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훈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샘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검손과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수를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총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사 사: 이재훈 목사.
장소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시 시: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화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훈)

2024년 4월 복지교회 POWER UP!

교회복지세미나 (무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레위기 21장 17절~21절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피혈병이나 비집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니라

일시장소 4월 18일(목), 20(토) 11:00~14:30
안양복지교회 (위치: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61번길 30)

모집인원 요일별 선착순 30명

주제 1.장애와 관련된 성경 용어 수정 및 이해
1.교회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강사 조상원 목사 교회복지연구원설립자
-The Christian Welfare Campus of Harvest Bible University 학장역임
-주요저서: 교회복지이해, 장애와 관련된 성경용어 수정 및 이해, 다시 읽는 성경(신약편), 교회와 장애인복지

등록 | 홈페이지 등록 www.cws95.net
문의 | 문자등록 010-9643-6356, 점심식사 제공

한국교회복지사회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향교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1995~2024 /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교회복지연구원

교회복지학과 신입생 모집

2024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 교육기간 : 2024년 5월부터 12주
서울(화요일), 대전(목요일)
- 교육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강의실(3층, 4층)
및 본원 강의실
* 서울은 단 1명이 등록해도 개강합니다.
- 등록비 :
- 50만원(점심식사 제공, 국내 교회복지 실습비 포함)
- 500만원(호주 & 미국으로 교회복지 실습 회당 시)
* 등록비는 개강식 이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분납도 됩니다.
- 등록방법 :
010-9643-6356 문자로 성명, 직분, 등록 지역을 보내시거나 www.cws95.net 신청에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기재하시고, 신청 내용에 신청(예/서울 신청)이라고 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상담문의 : 010-8011-9191(서울/김성덕 박사)
010-5115-9104(대전/정바울 박사)

[특전 및 진로]

- 2년 4학기 수료자는 본원 졸업증서 및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자격 발급비 없음)
- 목회자의 경우 1학기 수료 이후 소정의 자격시험 합격 시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
- 목회자의 경우 국내외 교회 및 기독교 관련 복지기관 및 시설 교회복지 전문 목회자로 활동
- 평신도의 경우 국내외 교회복지 기관 및 시설,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설치 및 운영

www.cws95.net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과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교회건축의 모든 것
교회건축포럼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후원은행 :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을 노하우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알스스틸링과 융합기술
- 연무대학교 7000여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투어 방송 사례(수령교회/ 호신교회)



인테리어
에스프리글로벌 최종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음향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CM
(주)라미건축사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례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우선이다
- 교역자가 알 일, 건축위원회가 알 일
- 설계자의 업무, 시공자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영원을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

크리스천북뉴스 서평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



솔직히 시간 관리에 관한 신앙 서적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케빈 드영의 <미친 듯이 바쁘>(부흥과개혁사, 2013)이다. 생산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삶을 오히려 규모 없게, 목적을 상실한 채 살지 않도록 경고하고, 단순한 목표를 세우고 충성스럽게 살라고(왜 바쁘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항상 기억하라) 권면하는 좋은 책이었다. 2019년에는 팀 페리스가 쓴 <Do More Better: A Practical Guide to Productivity>를 번역해서 청년들과 함께 읽고 실천해 보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유익하면서도 실제적인 원칙과 방법이 이 책에 많이 나온다(그래서 짧은 소개자인 이 책이 정식 출간되었으면 좋겠다).

사업가로 바쁜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관리하며 살기 위해 애쓰는(또 이것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강연하는) 조던 레이너는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라는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시간 관리의 원칙을 제시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셨다. 책의 원래 제목은 "Redeeming Your Time"으로,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구속하라(구원하라)는 의미다. 저자는 시간 관리와 생산성 관련 책을 40권 넘게 읽었다고 말한다(21p). 그

리면서 자신이 쓴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가 1) 시간의 창조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셨는지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2) 시간 관리 관련 서적이 말하는 여러 원칙을 통합하고 정리해서 통일성 있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3) 신학과 실천, 이론과 전술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애쓰는 측면에서 신선한 책으로 독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저자가 선정한 삶을 목적 지향적, 현실적, 매우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는 7가지 성경적 원칙이 책의 부제는 다음과 같다: 1. 말씀으로 시작한다, 2. 하기로 한 일을 한다, 3. 소음의 왕국에서 벗어난다, 4.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5. 한 번에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6. 생산적인 습을 누린다, 7. 모든 서투름을 제거한다. 저자 레이너는 목표한 바대로 7가지 성경적 원칙을 자세히 풀어 설명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내세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바쁜 일상을 보내셨는지, 시간을 하루투루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부합하도록 사셨는지 설명한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셨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으셨다(복음 전파). 많은 일에 둘러싸일 때, 한적한 곳으로 피하기도 하셨고, 신적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항상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종종 제자들과 습을 누리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분이셨지만,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시간을 구할 수 있을까? 저자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각각의 성경적 원칙 아래 독자가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과제가 나온다. 가령 시간에 관한 예산을 작성하는 것(계획을 세우는 것)을 설명하면서, 일정을 조정하고 우선순

위에 따라 배치하고, 하루 몰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인 4시간을 각각 어떻게 배치하면서 동시에 중간에 생산적인 습을 끼워 넣는지 저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독자가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특별히 생산적인 삶을 위해 조직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무척 유익한 팁이 많이 나오는 책이다.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독자들은 저자가 추천하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는 SNS 등도 저자가 제시하는 방식대로 통제하면 많은 시간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기회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활동으로 시간을 소비한다. 너무 자주 기회를 흘려보내고, 심지어 주어진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여겨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조던 레이너는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다시 한번 시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준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주인공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신 시간만 사용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사용한 시간만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시간을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성향의 사람이든 자유롭게 사용하는 성향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레이너의 유익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짧은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영원을 준비하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 조던 레이너의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를 읽는 모든 독자가 저자의 바람대로 예수님처럼 시간을 사용하여 목적과 의미가 충만한 시간을 살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인, 유령교회

신간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모진 고문으로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는 저서나 자서전을 남기지 못했고, 평양에서 직접 작성했던 설교와 각종 문서들도 대부분 소실되었다. 그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당시 성도들과 가족의 증언뿐이다. 한국 순교자의 자취를 전하는 데 힘써 온 유승준 작가는 주기철 목사의 막내아들인 주광조 장로의 어린 시절을 복기한 친필 원고와 육성 자료, 당시의 사실적 증언들을 토대로 <나의 아버지 주기철>을 집필했다.



저자는 "주현성은 이규련에게서 3남 2녀를 낳았고, 사별 후 조재선과 재혼해 주기철을 낳았다. 주기철은 안갑수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는데 영진, 영만, 영해, 광조가 그들이다. 주기철의 족보를 성경체로 쓴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로써 주광조는 주기철의 막내아들이 되었다. 이것으로 그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의 인생 항배가 결정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산학교에서 유명모, 이승훈, 조만식 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주기철은 졸업 후 실용적인 노선을 택해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예수교대학 상과에 진학한다. 그러나 힘 있는 나라, 잘사는 조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청년 주기철의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만다. 안절이 심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학기 만에 대학 생활을 업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1917년 10월, 스무살 나이에 세 살 아래인 안갑수와 혼례를 치른다. 그녀 역시

김해읍교회에 다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가 웅천읍교회에서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던 1919년 10월 큰 아들 영진이 태어났다. 이 무렵 주기철은 마산 문장교회와 웅천읍교회 사경회를 통해 부흥사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거듭난 후 병세가 호전됨에 따라 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한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1925년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초량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해 목회 활동을 시작한 1927년 11월에는 셋째아들 영해가 태어났으며, 두 번째 목회자인 마산 문장교회로 옮겨간 직후 1932년 3월 막내아들 광조가 태어났다. 주기철은 아들 이름에 모두 사용했던 돌림자인 '관할' 영 자를 쓰지 않고 유독 막내 이름만 '광조'라고 지었다. 이는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꿈의 인문학

32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줄곧 꿈꾸는 존재였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인간만이 꿈에서 겪은 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꿈은 놀라서 깬 만큼 사실적일 때도 있지만, 수수께끼가 가

득한 상징으로 가득해 꿈에서 깬 이후에도 한참을 곱씹게 만들기도 한다.

밤이 오면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로 모여들어 잠에 들었고, 아침이 되면 지난밤의 꿈을 나눴다.

꿈에 나타난 상징들로 인간은 상상의 나라를 펼쳤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전을 세우고 도시를 만들었다.

도구가 복잡해질수록 인간의 정신도 복잡해졌는데, 이때 꿈은 인류의 지적 도약을 가능케 했다.

'꿈의 인문학'(흐름출판)은 세계적 신경과학자 스티브라

히베리우 교수가 19년간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예술을 넘나들며 꿈과 수면이 인간 인지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집대성한 책이다.

저자는 인간이 꿈의 예언을 받는 것을 넘어 직접 꿈을 자각하고 우리 내면 의식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창조성과 시뮬레이션 능력을 키우고 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진일보하게 도울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수지 기자

4월, 작가들의 말말말



진화는 생명체의 부품들이 조립되는 과정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세포가 저절로 형성되려면, 먼저 정상적인 부품들이 모두 만들어져야 하고, 그다음 각 부품들이 3차원의 공간에서 완전한 시스템으로 저절로 조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를 셀 수도 없는 많은 부품이 스스로 제 위치를 찾아가야 한다. 이 과정은 현대의 과학 기술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교하고 복잡한 부품들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저절로 조립되어 질서 있는 생명체의 시스템을 이루었다고 믿는 진화론의 주장은 과학 법칙을 무시하는 반과학적 상상이다. 세포는 자연적 화학 반응과 물리적인 과정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반대로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 있었다는 증거다. 이는 물이 저절로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초과학적인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생명체 창조 과정은 반과학적인 진화론의 주장보다 훨씬 논리적인 설명이다. 모든 세포를 포함하여 생명체는 전능하신 창조자의 작품들이니 것이다!

최우성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풀려 나온 우의 인사 46명과 박병근 전도사는 그곳이 그들의 순교지가 될 줄 어찌 알았을까. 공산당원들의 무차별적인 총살에 의해 박병근 전도사는 끝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고 말았다. 박병근 전도사의 시신은 두 손은 앞으로 묶이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위에서 등에 대고 쓴 총탄이 배를 관통한 흔적이 역력했다.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렀던 박 전도사는 끝내 일본 경찰이 아닌 좌익 사상에 물들은 동포가 쓴 총탄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다. 공산당원들의 체포의 위험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면서도 끝내 주의 몸 된 고회를 지켰던 박 전도사는 내심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해방 전 일제하에서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하는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순교의 피를 땅에 쏟았던 것이다.

박종기 '말의 흔적'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변화무쌍한 시대에 불변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이다. 복음은 변하지 않은 진리이지만 선교(혹은 복음을 전하는) 전력과 방법은 시대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먼저 이 시대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기독교 선교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현 시대의 특징은 크리스텐덤의 쇠퇴와 더불어 선교회 교회의 등장, 그리고 세계 기독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에 부합한 21세기 선교회운동은 기독교의 새로운 무게중심으로 성장한 비서구 다수세계 교회들의 선교회운동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우월한 문명, 막강한 재정적 파워, 잘 정립된 신학 등을 앞세워 진행하던 서구의 크리스텐덤(기독교 세계) 선교 방식이 재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근대선교회운동을 이끌어 오던 서구의 선교회방식을 비서구 교회들이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양홍열 '세계 기독교시대의 약함과 선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정체가 되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원내안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1)**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3: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제목은 많은 크리스천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구절이고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죠?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

데모는 처음에 주님께 나아간 것은 주께 서 보이는 이적을 보고 나아왔습니다.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더 깊은 세계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이는 표적에서 내면의 거듭남으로 그의 초점을 옮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까지 갑니다.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듭남과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 함께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 21: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21: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21: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 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21: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불 뱀을 보내서

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진노를 그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구리 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회개할 때 그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렘 29: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나 평안하고 재물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여주시고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의 잘못으로 비참한 상황, 죽음의 상황에까지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낭떠러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불드셔서 끄집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분의 간증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신실하게 전도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노는 것을 좋아하는 무신앙이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아내를 꼬득여서 함께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다른 길로 새버리는 것입니다. 놀러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사지로 내모는 상황 가운데 그 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족을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은 한국의 위대한 전

도 왕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범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범죄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출애굽 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 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이 모세의 구리 뱀을 쳐다봤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끄집어서 당신께서 가져야 할 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 세상 모든 죄를 주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죄 값을 치르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신 사건, 이 십자가의 흘린 피를 지금 광야에서 구리 뱀의 사건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서광교회 제공

바이블지식IN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죄 (그것이 구원전의 죄이든, 구원 이후에 저지를 죄이든) 에 대한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며, 죄의 결과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죄책감이 우리를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순간, 그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3:2, 4:17; 사도행전 3:19).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끔찍한 죄조차 지워집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불의한 행위들의 목록은 고린도전서 6:9-11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는 용서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며,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1).

그러나 죄로부터의 자유는 항상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죄악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형제를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 12:10)로 불리는 영적인 원수가 있어서, 우리의 실패와 잘못과 죄악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책감을 느낄 때,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1) 이전에 자백하지 않은 모든 아는 죄를 자백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자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타당합니다. 많은 경우,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편 32:3-5에서 다윗이 그러고 있는 죄책감과 그것의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2) 자백해야 할 다른 죄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 달라고 주께 기도드리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서 철저히 열린 마음으로 정직해 지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시라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사편 139:23-24).

3) 다른 사람을 향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배상을 해 주십시오. 사게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질이나 갚았나이다.” (누가복음 19:8) 라고 주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설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8)의 일부입니다.

4)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죄책을 없애 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요한일서 1:9; 사편 85:2, 86:5; 로마서 8:1).

5) 이미 자백하고 해결된 죄악에 대해 죄책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한 감정을 거둬낸 죄책감으로 여기고 거부하십시오.

시오. 주님은 용서하기로 하신 약속에 충실하셨습니다. 사편 103:8-12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6) 주님께 당신의 고소자인 사탄을 책망하도록 기도하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사편 51:2).

사편 32편은 매우 유익한 연구입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의 원인과 용서의 실제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편 51편은 연구해 볼만한 또 하나의 좋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다윗이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회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

고 용서를 받으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사라진 ‘옛 것’의 한 부분은 과거의 죄와 그것이 만들어 낸 죄책에 대한 기억입니다. 슬프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전에 죽어서 묻혀져야 했던 과거의 죄 많은 삶에 대한 기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상반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수구에서 건져내셨다면, 그 곳에 다시 들어가 헤엄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지혜의 말을 빌려봅시다.

캣케스천스 제공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침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침향 16%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희의 진향 정성, 광동 쌍희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롤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91)**

로마서 8장 8절

8. Thos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cannot please God.

Thos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 육신에 있는 자들은 cannot please God. :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단어, 속어

control 지배, 지배하다. //traffic control : 교통 통제. //talks on arms control : 무기 규제 회담. //government controls on trade and industry : 무역 및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A new advance has been made in the control of malaria. : 말라리아 억제에 있어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졌다. //Price controls on food were ended. : 식품에 대한 가격 규제가 종결되었다.

please 기쁘게 하다, 제발 부디(Please come here). //Please don't leave me here alone. : 제발 날 여기 혼자 남겨 놓지 마. //Please, please don't forget. : 부디, 제발 잊지 마세요. //Please, I don't understand what I have to do. : 정말, 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혼이 여전히 육신에 말착되어 있어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신 안에 갇혀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 구원받았다.

사도행전 10:1-4,34,35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 하루는 제 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1 At Caesarea there was a man named Cornelius, a centurion in what was known as the Italian Regiment. 2 He and all his family were devout and God-fearing; he gave generously to those in need and prayed to God regularly. 3 One day at about three in the afternoon he had a vision. He distinctly saw an angel of God, who came to him and said, "Cornelius!" 4 Cornelius stared at him in fear. "What is it, Lord?" he asked. The angel answered, "Your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have come up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 34 Then Peter began to speak: "I now realize how true it is that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35 but accepts men from every nation who fear him and do what is right.

▶해석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9. You, however, are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You, however: 너희가 ·, are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but by the Spirit : 영에 있나니 ·,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 속어

however 그러나,아무리~할지라도. control 지배하다,지배력,단속,조종 belong to ~에 속하다,~의 것이다,~에 관계하고 있다. not A but B : A가 아니라 B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당신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다. 구원받은 당신은 성령이 거하시므로 당신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는 "잃은 자"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말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아버지요, 인류는 모두가 한 형제다"라는 말은 국제 사회주의자들이 부르는 이교도적 정치 선전 문구다. 성경은 이런 구호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고린도전서 3:16-17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17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him; for God's temple is sacred, and you are that temple.

요한복음 14:17-21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4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15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16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17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18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19 Before long, the world will not see me anymore, but you will see me.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20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21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해석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건강상식

치과 의사가 생각하는 올바른 칫솔질 순서

환자가 치과에 처음 내원했을 때 치과 의사가 제일 먼저 보는 입 속 부위는 바로 아래 앞니 혀 쪽과 위 어금니 바깥쪽이다.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치석이나 치태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바로 이 부분이라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렵고 잇몸질환 풍치가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치태 및 치석이 아래 앞니 혀 쪽과 위 어금니 바깥쪽에 잘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래 앞니 혀 쪽과 위 어금니 바깥쪽은 칫솔모가 닿기 어려워 칫솔질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아래 앞니와 위 어금니 쪽의 침샘 때문이다.

치석은 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귀밑샘은 위 끝 어금니 바깥쪽 쪽막과 작은 어금니 부위 혀 바로 밑에서, 혀 밑샘은 아래 앞니 가운데 부분 혀 바로 밑에서 침이 분비된다. 따라서 이렇게 침샘에서 분비되어 침이 고여 있는 부위는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치석이 생길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안다면 칫솔질할 때 다

른 부위보다 아랫니 안쪽 면과 윗니 안쪽 면을 더더욱 신경 써서 닦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칫솔질 할 때 치아 바깥쪽 면부터 박박 닦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치약의 거품이 사라질 때쯤이면 치아 안쪽 면을 성의 없게 대충 닦게 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치아 안쪽은 치석들이 더 잘 생기는 부위인데 이런 순서라면 치아 안쪽 면은 평생 제대로 못 닦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칫솔질의 순서는 치아 안쪽 쪽부터 해서 바깥쪽을 닦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추가적으로 칫솔질 후에 치실이나 치간치솔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류성용 뉴연세치과 원장

은혜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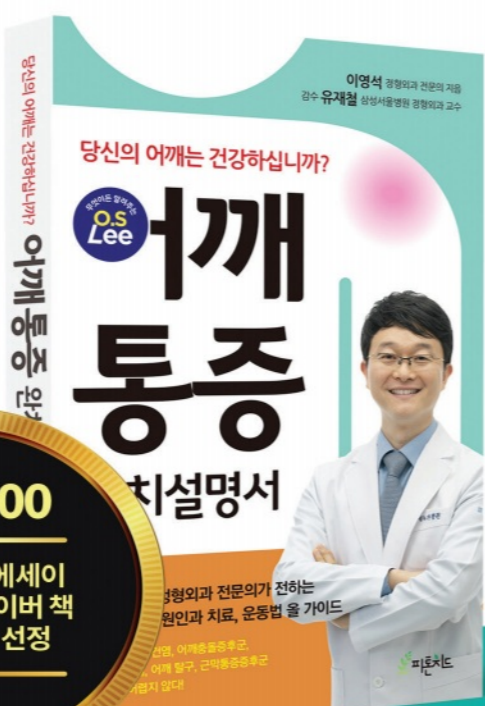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15

基督日報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독일 통일을 이뤄낸 ‘실천적 공동체 영성’을 찾아서(2)

성지순례



독일 베를린 카이저 교회.

「워키토키 유럽」 저자들과 떠나는 유럽 여행(2): 베를린에서

이런 개신교의 역사적 기초 위에서 독일교회 「마음 속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넉넉한 에너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어떤 면 물리적인 베를린 장벽을 허물기까지 교회 활동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일지 모르지만요.

2. 자유를 사용하라 - 마르틴 루터

통일에 크나큰 기여를 한 독일교회의 중심에는 그들이 자랑스러워 마지 않는 종교개혁의 아버지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3대 저서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다.”

과연 오씨(Ossi)와 베씨(Wessi)들의 통일 독일에는 루터가 말한 ‘종이 되는 희생’이 필요합니까. 과거 서쪽 독일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모든 서쪽 출신 그리스도인 역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므로 모든 서쪽 출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

40년을 공산주의 체제 속에 살아온 동

쪽 사람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요. 서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한다면, 좀처럼 기다리며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동쪽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야겠습니다.

“모든 동독 출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므로 모든 동독 출신 그리스도인은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베씨’의 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재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은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 그럼에도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의 삶을 살았던 동독 사람들은 역사의 현실 앞에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희생을 전제로 한 솔

직한 대화가 양쪽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독일은 비롯한 유럽을 휩쓸었던 종교개혁은 이러한 종교적 기초에서 출발한 자기 희생만이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지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남한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므로 모든 남한의 그리스도인은 북한 사람들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출발선에서 통일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과 종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파괴적 비판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자세를 가지도록 격려하고 기대하면 어떨까요?

변호사(황경태)와 농부(홍윤선), CEO(주광재)와 사회학도(최규동) 등 네 명의 크리스천 남성 청년들이 유럽 곳곳을 탐방하며 살아있는 공동체 영성을 찾아 나선 여행기, 「워키토키 유럽(Walkie Talkie Europe-이담복스)」의 저자들이 신앙의 '본류를 찾아 떠났던 그 소중한 경험을 본지에 연재합니다.

성경상식

금송아지(golden calf)

우상인가 장난감인가, 금송아지의 송배 출애굽기 32:1-4, 5-19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역사의 중대한 아이러니가 있었다. 십계명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와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들은 산 아래에서 요란한 우상숭배에 열중했던 것이다. 산에 오르기 전에 모세는 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신의 명령에 복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불복하면 징벌을 당하리다.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 실은 오를 수도 없었지만, 산에 오른 모세는 신을 직접 만나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았다. 산에는 구름이 짙어지고 우레 소리가 들리고 천상의 신 비로운 나팔이 울렸다. 그러나 모세가 히브리인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아론은 백성들이 지닌 금붙이를 모아 황금 우상을 만들었다. 성서에는 송아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아마 젊은 수소였을 것이다. 고대에는 수소를 풍요의 신으로 섬겼다. 동생에게 그리 충직하지 못했던 아론은 그 금송아지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준 신이라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절탕하게 놀았다. 성서에는 ‘뛰놀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이교의 송배 의식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성격으로 난잡한 상태를 의미한다. 산 위에서 신은 모세에게 그 타락한 백성들을 파멸시키겠다고 말했으나 모세는 그러지 말라고 애걸했다. 산에서 내려가 난장판을 목격한 모세는 율법이 새겨진 석판을 깨뜨렸다. 그는 우상을 불태우고 부숴 가루로 만든 다음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또한 신은 백성들에게 역병을 내렸다(성서에는 어떤 병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코란도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신의 분노가 내려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은혜의 샘물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 맘대로 일이 착적 이루어지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신이 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사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때보다는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나의 정당한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맘풀이거나 짜증내거나 화내기보다는 조용히 앞뒤를 살펴며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잊지 못한 이유는 또 있다.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계승하면서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차지하지 못한 북 왕국의 왕은 두 곳의 예배 장소를 만들고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들을 설치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 했다.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에 동물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분개했다.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고 여긴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만 보면 늘 시나이 산에서의 그 끔찍했던 사건을 떠올렸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성서에 나오는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다. 들녁 출판사 제공

내 자신도 내 맘대로 움직이기 쉽지만, 내 맘대로 다른 사람들을, 무슨 일을 내 맘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 가족이, 내 동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세상이 나의 좋은 뜻을 따라 주지 않을 때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박동현 교수(장신대 구약학)

향유음악

참 교회, 참 성도, 참 사역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무엇이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게 하는가?

이 셋을 위해서는 대안제가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로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들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구성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곧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철학자나 지혜자나 그 어떤 사람이나 사탄의 이름이나 권세로 모인 곳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자 곧 주님을 영접한 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이들 곧 영으로는 주의 자녀가 된 이들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종종)으로 제자된 이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빛과 소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자리도 일으켜 세우는 증거가



뒤따르는 것이요, 환란과 핍박 속에서 도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 18: 19,20)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외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찬양으로 승리를 선포하라” III (역대하 20장 13~30절)



이준원 목사

3. 찬양의 능력

1) 찬양할 때 마귀가 도망간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게 하며, 현실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마귀의 세력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얼마나 철저히 패배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찬양은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보게 해주고, 우리가 과대평가했던 마귀의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약한 세력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느끼게 해줍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해주는 반면, 찬양은 영적 전쟁을 끝내게 해줍니다. 영적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절망적인 상태에 이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순간입니다. 찬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마귀를 꾸짖으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수많은 귀신들이 무너지고 쫓겨 갑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찬양하라는 말은 더 많이 나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귀를 대적할 때 더욱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하게 판세를 확 바꾸

어버립니다. 사탄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입으로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한 마디라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사탄은 비명을 지르며 쫓겨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삶에 사탄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찬양하며 경배하면 사탄을 쫓아내게 됩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힘든 상황일 때는, 고백적인 노래나 한탄조나 간증적인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찬양' 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힘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고 "주의 보혈 능력 있다", "보혈을 지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찬양을 할 때 더러운 영들이 쫓겨갑니다. 크리스천 노래라고, 찬송가라고 다 찬양이 아닙니다. 간증적인 곡들도 많습니. 그런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그런 고백조의 노래를 부르면 자꾸 자기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슬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혈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어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은 악한 영들을 두렵게 하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2) 찬양은 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준다

찬양은 우리의 눈을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줍니다. 신실한 기도의 용사들도 종종 영적인 메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

로는 영적으로 탈진해서 맥이 빠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은 새로운 영적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가 정제 상태에 빠질 때 우리에게 찬양의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침체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송한다." 기도가 침체 되고 막혔을 때 그것을 뚫어주는 찬양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주신다고 하는데, 때로는 상황을 변화시켜주시는 통로가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기도해왔던데 별 응답이 없을 경우 찬양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가출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딸 때문에 3년 동안 매일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왜 응답해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원망 섞인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들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알겠지만, 오늘부터는 원망하지 마시고 찬양하며 기도해보십시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찬양할 게 있어야 찬양하죠?"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어머니는 그 날 밤 몇 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밤 10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사흘 후에 그 딸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쁘면서도 놀라워서

딸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느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기를, 사흘 전 밤 10시에 자기가 술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술에 밤쯤 취한 상태였는데도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눈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결국 3일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찬양이 우리의 영안을 맑게 한다

마귀가 노리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황을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의심의 마음으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고, 단지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예 불가능하게 보이도록 하며, 함께 일하는 형제자매를 불신하며 미워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화가 나 계시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영안이 흐려지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보십시오. 그러면 더러운 유리창을 닦을 때 선명하게 보이듯이, 성령께서 찬양과 함께 우리의 흐려진 시각을 깨끗하게 닦아주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세

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는 하나님이 군대를 보게 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주실 것도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영안이 맑아지면 관심의 초점이 달라 집니다. 이전에는 복잡한 현실에 머물렀는데, 주님께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해주신 일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래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며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닥친 고통의 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점점 더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맑아지면 고통 속에서도 근심 걱정이 달아나버립니다. 빌립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이런 꼴까지 당해야 하나?"라고 얼마든지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함람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타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

든 죄수의 수가이며 차꼬가 풀렸다." (행 16:25-26, 새) 그들이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차꼬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뛰어와 두려움에 떨며 결국 그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은 과정과 근심을 물리치게 합니다. 마귀가 불어넣은 의심과 비난과 초조함을 거두어가고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합니다.

[나가는 말]

우리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말로 찬양할 수도 있고, 노래나 악기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뿐 아니라, 주중에 일할 때 사무실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하루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보십시오. 운전하는 동안에도 찬양 곡을 들으면서 차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보십시오. 아이를 재우면서도 찬양하고, 산모들도 찬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오.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또한 두렵고 떨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갈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콜럼버스한인장로교회 이준원 목사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정의, 용도, 원리 II

오늘은 구약 시대의 헌금의 원리와 신약 시대의 헌금의 원리를 알아보고 그 공통점을 찾아보고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헌금의 정의, 용도,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당시의 어떤 사람들을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고..."(행 7:38)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동일합니다.



조정 목사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이자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기에 구약의 배경과 오늘날의 배경은 바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십일조는 10분의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십일조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자 세금이었습니다. 곡식, 과일, 가축, 돈 등 모든 재물의 10%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십일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백

성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관리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관리로 삼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48 군데로 흩어져서 각 지파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레위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는 땅을 나누어 가졌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십일조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십일조입니다.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백성들의 세금을 10%를 모았습니다. 여기까

지 유대인들은 소득의 20%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 3년마다 10%를 더 걷어서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23.3%를 내야 했습니다. 이에 추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 다 거둬들이지 않고 남겨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했고,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매 7년 뒤 빛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매년 25%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더 드리고자 하는 이들은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십일조를 강조합니다. 실제로 십일조를 성경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성도들도 25%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십일조를 권장하는 이유는 그만큼이라도 내라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의 십일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일조는 예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십일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벨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자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창 14:20)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후에 얻은 재물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십일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

나이다 하였더라"(창 28:22)"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고 나서 그들이 제정한 법에 따르면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와 성물이 되리라"(레 27:32)"고 합니다. "너희의 너희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사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신 12:6-7) 구약의 십일조가 갖는 세금으로써의 강제성과 정해진 비율은 오늘날에 바로 가져올 수 없는 규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야 할 원리입니다. 유령교회 조정의 목사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신의 배달부’ 공모전서 대상 수상

선교 미디어 CGN은 3월 2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김다빈, 김선진의 ‘신의 배달부’가 수상했다.

공모전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넉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복음 콘텐츠를 주제로 총 95개 팀이 참가했다. 서류 심사를 거쳐 10개 팀이 결선 PT에 진출했고,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등 4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시상식 수상자 기념 사진. ©CGN

대상은 ‘신의 배달부’의 김다빈, 김선진 팀, 최우수상은 ‘빛진구들의 황주운, 우수상은 ‘로드 스테이션’의 이주은, 장병준 팀, ‘쇼 유어 라이프’의 민민에, 유선주팀에게 주어졌다.

대상을 차지한 ‘신의 배달부’ 팀은 김다빈 형제의 열정적인 기획으로 주목받았다. 김다빈 형제는 “기독교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면서 은퇴 선교사님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선교사를 위한 방

송으로 시작된 CGN에서 이런 콘텐츠가 제작된다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 번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은퇴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이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은 CGN의 개국 19주년 감사에 배에서 열렸으며, CGN 이사장 이재훈 위임목사(온누리교회)가 직접 시상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신의 배달부’는 은퇴 선교사들의 귀국 후 삶과 사역을 소개하고, 배달 선교사

가 되어 선교지와 후배 선교사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들고 가는 특별한 여행을 담은 콘텐츠다.

한편,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상금 500만원과 함께 4개의 수상작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내부 시사를 거쳐 풍당과 CGN 채널에 편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GN은 더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성도들의 영성을 더욱 풍요롭게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 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생명양식 - 데일리큐티-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 설교/연등교회 김주용 목사 30 TV 설교/성찬교회 오일호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5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0 TV 설교/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 3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오직주님) 명성의 위상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센터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말씀의 센터 왕성교회 김요나 목사	30 [청소년라이프코칭] 내 마음 일기예보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30 TV 설교/새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CTS아침찬양 40 말씀노트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20 다큐 더 로드 30 힐링송 5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	20 CBS성서학당	00 복음강단 -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00 CTS특집	50 리바이즈 헤리티지	00 CGN 비전특강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이스라엘로 (오심소)	10 새롭게 하소서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0	50 힐링스토리	00 말씀의 센터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30 말씀의 센터 여의도침례교회 국명호 목사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00 살롱 팔롱 10 더 콜링 : 부르심의 소명 40 CBS TV 뉴스/CBS 뉴스	00 힐링토크 회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오후	11:00	00 [생방송] CTS대담 한국교회를論하다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센터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청소년라이프코칭] 내 마음 일기예보	00 울포원	00 새에덴교회 부활절 칸타타 30 에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오병이어교회 금요성령충만집회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 설교/구세군대현분회(담당 사관) 30 TV 설교/민리현성결교회 조준철 목사	2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우리 함께 찬양해
	13:00	00 생명의 말씀-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30 신앙예배 40 [워킹온더바이블] 성경의 땅	00 말씀의 센터 영광교회 조이엘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다니엘 기도회	30 2024 한국교회 부활절연예배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위대한 유산	00 주일예배실황 공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종조 목사(갈보리교회)	00 TV 설교/신일교회 배요한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00 백석의 센터
	15:00	40 7000마라톤 - 스페셜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김용준 목사(열린문장교회) 40 생명의 삶	20 행복다이어리 30 TV 설교/약대교회 송규의 목사	00 C채널 스페셜 30 C채널 스페셜
	16:00	30 생명의 말씀	00 말씀의 센터 목길교회 임재호 목사 30 말씀의 센터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직분자 제자훈련 (술만한 도끼 한 자루 준비합니다)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박관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44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과 물고기" 5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정필도 목사의CTS성령집회 50 빛으로 소망으로	00 말씀의 센터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30 말씀의 센터 분당성교회 윤귀현 목사	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행남교회)	40 CBS 교회소식 50 성서 700 도시여행/성서 700	00 말씀의 창 -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장충현 총장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행복플러스 30 한성위성 50 더 메시지	10 크나추 5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30 TV 설교/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30 말씀의 창 - 엘드림교회 임병재 목사
	19:00	00 찰스 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정의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00 말씀의 센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말씀의 센터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30 신약의 세계로 오심소	00 TV 설교/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 30 TV 설교/메다니교회 박주환 목사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트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위상
	20:00	0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윤차복 목사(영등포비전교회)	00 말씀의 센터 거북한빛동정 유정상 목사 30 주일예배실황 지구촌교회 서울	00 레디온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오직 주님만 슬로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10 비전메시지 -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 새문교회 황형택 목사
저녁	21:00	00 CTS 뉴스 4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건관	30 리바이즈 헤리티지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 50 CBS 뉴스	1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CTS 낭만 레코드 워십 코리아	10 오윤교회 금요침야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한성교회-	10 울포원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20 새에덴교회 부활절 칸타타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침야예배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권퍼런스] 선교로의 부르심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10 CBS 금요침야예배/CBS금요침야예배	00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으로 40 리바이즈 워십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주일예배실황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한국교회 상담사역 콘퍼런스	00 새롭게 하소서 50 TV 설교/신위의마음교회 김영준 목사	00 서재의 재발견 2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TV찬양예배	00 오 자유여	00 2023 KGMLF 4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40 TV 설교/사랑의 말씀(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00 말씀의 창 - 하나원교회 이학권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명실교 인턴 제2교회 이권영 목사 3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목사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30 TV 설교/말씀과 함께(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00 말씀의 창 - 원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CTS특선영화 그물이 찢어지다 40 [워킹온더바이블] 성경의 땅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How Are You Feeling?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00 새롭게 하소서	00 선교는 지금 2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육한홍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생명의 말씀 서울진주초대-전태식	00 은혜와 찬양 20 말씀의 센터 감일교회 차영아 목사 50 힐링송	10 [말씀] 박신용 목사(열반인온누리교회)	00 CBS성서학당/스페셜 50 CBS 교회소식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성지가 좋다 50 힐링토크 회복

도사회화 이영화 작가, ‘connected’ 개인전

질감으로 만든 진지한 삶의 가치

오방색 가득한 조각보, 달항아리, 매화, 규방 등 우리 전통적 이미지로 도사 회화를 시작하여 현재는 흙, 모래, 조개 가루 등을 활용한 바탕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추상적 이미지로 세련미를 높인 작품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도사회화 이영화 작가. 그가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connected’ 타이틀로 서울 인사동 아리수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진행한다. 굳이 전 휴 표면에 대나무 갈로 결을 내고 다시 작은 조각 모양을 만들었다. 또한 수많은 조각 면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작품의 깊이가 대단하다.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도사회화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영화 작가는 “connected 시리즈” 작품으로 존재의 이유와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연결성과 연대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되어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가 온전히 작동되는 세상을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작가는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도사회화학과 석사 출신으로 ‘한국적 도사회화 조형미 연구’ 논문 발표로 도사회화를 학문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작품을 제작 중인 이영화 작가. ©주최 측 제공

현재는 세종도사연구회 회원, 한국도사학회 정회원으로 미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장애인의 날 기념 사랑의 음악회’ 열린다



날 기념 제21회 사랑의 음악회가 오는 18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

린다. 이번 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재)한 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재)한국장애인문화 예술단체총연합회, (재)한국장애인단체총 연맹, 한국수출입은행, 사랑의 열매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예술인들에게 역량 강화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합창 및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는 대구 빛합창단을 비롯한 역대 수상팀과 비장애합창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오케스트라는 펠리체예술단(발달장애), 국장협나눔 챔버오케스트라(발달장애)와 비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다. 노형구 기자



IBK 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IBK 대출통로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